



美연준, 6연속 금리동결... 한은의 선택은 3



물가 2%대 진입했지만... 금사과·금배 여전 4

##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새 220% 늘었다

### ‘부메랑’ 된 부동산 PF

증권사, 3개월 만에 1.1兆 급증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30% 최고

PF 위험노출 200兆 수준 추정  
“빛 돌려막는 현장 과감한 청산은”

금융권 부동산PF 고정이하여신 잔액  
(단위: 원)

	2022년 말	2023년 9월말	2023년 말
증권	7000억	1조2000억	2조3000억
카드·캐피탈	4000억	1조	1조2000억
보험	2000억	5000억	1조
저축은행	3000억	5000억	6000억
상호금융	100억	100억	1000억
은행	300억	400억	400억
합계	1조6400억	3조2500억	5조2400억

\* 출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금융권이 짊어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규모가 지난해 말 5조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큰 부실채권 잔액이 1년 사이 200% 넘게 불어난 것이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3개월 만에 1조1000억 원이나 급증하면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부동산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실 뇌관’이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로 전이돼 나쁜 연쇄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본지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고정이하 여신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5조24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5% 폭증했다. 전 분기 대비로도 61.2% 늘었다. ▶관련기사 16면

대출채권의 건전성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이문·추정손실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고정과 회수이문, 추정손실을 묶어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한다. 한 마디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은 금융사인 셈이다. 대손충당금도 20~100%까지 쌓는다.

특히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지표가 전 업권을 통틀어 가장 나쁘다. 증권사의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3000억 원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조1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부동산경기가 악화하자 기존 정상 또는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됐던 대출이 부실 위험이 높은 고정이하 채권으로 대거 변경된 것

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호황기 건설사·시행사에 보증을 서며 자금 조달을 도왔지만, 결국 그들의 부채를 떠안게 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이어 △카드·캐피탈 1조2000억 원 △보험 1조 원 △저축은행 6000억 원 △상호금융 1000억 원 △은행 400억 원 순으로 손실 가능성이 높았다.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증권사가 30.01%로 가장 높았다. 다른 업종보다 중·후순위 채권의 비중이 높아 1년 만에 2배 넘게 치솟으며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어 △저축은행 6.63% △여전사 5.08% △상호금융 3.24% △보험 2.44%로, 이들 모두 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 선순위채권 위주라고 안심하던 보험 권역도 전 분기(1.10%) 대비 2배 넘게 올랐다. 다만, 은행은 0.08%로 3개월 새 0.02%포인트(p) 하락했다. 특히 고정이하여신의 경우 업권별 적어도 20~30%의 총당금을 쌓아야 하는 만큼 향후 금융권의 유동성 경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부실이다. 글로벌 회계법인 삼정KPMG는 최근 ‘부동산 PF 관련 주요 이슈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200조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PF는 현재의 연체를 보다 향후 부실(고정이하여신)이 더 큰 문제”라며 “빛으로 빛을 막는 현상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일시적 자금 애로가 있는 곳은 추가 지원을 통해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dove@



### 마지막까지 파국 치달는 21대 국회

‘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강행처리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관련기사 6·8면

### ‘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강행처리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관련기사 6·8면

조현호 기자 hyunho@

## OECD, 올해 韓성장률 2.2% → 2.6% ‘깜짝 상향’

1인 소득 2만달러 이상 국가 중 1위  
반도체 수출 호조·내수 회복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0.2%p 오른 3.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주요 20개국 중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전망치다. 세계 경제는 작년과 같은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3·4면

OECD는 2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2월 제시했던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p) 높였다. OECD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2.3%), 정부(2.2%), 한국개발연구원(KDI·2.2%), 한국은행(2.1%) 등 다른 주요 기관보다 높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일시적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

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2.6% 성장 전망은 주요 20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다. OECD 전체 회원국(38개국) 중에서는 4번째로 높다.

성장률 전망 상향폭(0.4%p)의 경우 주요 20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미국(0.5%p)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올해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강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를 고려해 내달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당초 성장률 전망치(2.2%)를 2% 중반 이상으로 상향할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을 포함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0.2%p 오른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의 경

우 올해보다 둔화된 2.2%로 예측했다. 세계 성장률 전망은 올해(3.1%)보다 높은 3.2%로 제시됐다.

OECD는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불안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고물가·고금리 영향 장기화, 금리인하 지연 시 자산시장 위축 소지, 중국 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을 꼽았다.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종전 2.7%에서 2.6%로 0.1%p 하향 조정했다. OECD는 “3% 근처의 물가가 연말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물가 안정 목표 수준(2.0%)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노동·연금 등 구조개혁을 권고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정준칙 도입, 외국인력 유입 확대, 청년고용 확대, 노후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개혁 등을 제시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SK하이닉스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올해 물량이 솔드아웃(완판)된 데 이어, 내년 물량까지 거의 다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는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고히 하기 위해 HBM3E(5세대) 12단 제품을 3분기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업계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을 올해 2분기 이내에 양산한다고 발표하며 반격을 예고한 삼성전자와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곽노정(사진 오른쪽)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2일 경기 이전 본사에서 ‘AI 시대, SK하이닉스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HBM 시장 리더십을 확고히 하기 위해 세계 최고 성

## SK하이닉스 vs 삼성전자... 불붙은 ‘HBM 패권경쟁’

능의 HBM3E 12단 제품 샘플을 5월에 제공하고 3분기 양산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며 “HBM은 올해 이미 솔드아웃이고, 내년 역시 대부분 솔드아웃됐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이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인 클러스터 첫 공장 준공을 3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곽 사장과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HBM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곽 사장은 “저희는 고객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측면이 강해 과잉 투

SK “내년 HBM 물량도 거의 다 팔려 3분기부터 5세대 제품 양산할 계획”

삼성 “업계 최초 HBM 사업화 시작 9년간 누적 매출액 100억달러 전망”



자를 억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일축했다.

이날 삼성전자 역시 뉴스를 기고문을 통해 HBM 사업에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경륜(왼쪽)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실 상무는 기고문에서 “삼성전자는 2016년 업계 최초로 고성능 컴퓨팅(HPC)용 HBM 사업화를 시작하며 AI 용 메모리 시장을 개척했다”며 “2016년부터 올해까지 예상되는 총 HBM 매출은 1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곽 사장은 “하반기 시장 변화도 있어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같은 기간(SK하이닉스의) 누적 매출액은 백 수십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맞붙을 났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넘겨준 HBM 주도권을 다시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김 상무는 “차세대 HBM 초격차 달성을 위해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시스템LSI, AVP(어드밴스드패키징)의 차별화된 사업부역량과 리소스를 총집결해 경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혁신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송영록 기자 syr@

# '탄소0' 여정 본격화... 서울시, 건물 에너지성적 첫 공개

##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시행

서울시청 에너지사용량 B등급  
시소유건물 75.4% B-C 양호  
2년 후 온실가스 총량제 목표

서울시·탄복위 컨퍼런스 앞서  
프로젝트 지원 협력 업무협약

'B'

서울시청 건물의 에너지성적표가 나왔다. 2022년 기준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156kWh/㎡로, 평균(C)보다 높은 상위등급을 획득했다. 건축 당시 에너지효율을 높여 사용량을 최소화한 결과다. 건물 '연비'가 좋아 전기·도시가스를 덜 사용한 것이다.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 건 전국에서 서울시가 최초다. 서울시 주도로 건물 탄소중립 여정이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다.

2일 서울시가 건물 탈탄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고 등급을 매겨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서 오세훈(앞줄 오른쪽 일곱 번째) 서울시장, 안덕근(앞줄 오른쪽 아홉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건물 온실가스 혁신정책 실행 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것. 이른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상징적으로 서울시청 및 소유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등급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소유건물 517개 중 457개소 등급을 평가한 결과 A(6.3%), B(39.4%), C(35.98%), D-E(18.4%)의 분포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등급 설계분포 비율보다 B와 C 비율이 각각 16.4%, 4.98% 높았다. 에너지사용 관리상태가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 참석해 "그동안 목표와 이상만 있고 실천 방안이 부족했다"며 "기후동행건물이 자리를 잡으면 서울시가 기후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로 세계에서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등급발표가 의미 있는 건,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로 가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정확히 진단해야 온실가스 다이어트 목표

를 세우고 감축에 나설 수 있어서다. 건물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등급제→온실가스 총량제로 이어지는 퍼즐이 완성돼 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신고·등급제를 공공 의무, 민간 자율로 운영하다가 내년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26년엔 총량제 전면 시행이 목표다.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진도를 많이 뒀다. 미국 뉴욕은 '에너지스타(Local Law 95)'에 따라 2009년부터 건물 에너

지등급 부칙이 의무화됐다.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총량제'도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 도쿄는 건물 에너지배출량 거래제까지 도입,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도 일찌감치 정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 법 개정이 난항을 겪어왔다. 2022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산업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해결 물꼬가 트였다. 산업부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관리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고, 올 2월엔 에너지단위 목표관리 제도를 고시했다.

이날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 앞서 오 시장, 김상협 탄복위 민간위원장, 안덕근 산업부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서울시의 신고, 등급, 총량제 정책은 녹색 건물로의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탄복위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글로벌 빅테크 'AI용 전력 확보' 특명... MS, 재생에너지 100억弗 투자

MS, 헬리온 이어 브룩필드 계약  
올트먼 CEO는 엑소와트 펀딩에  
제프 베이조스, 제너럴퓨전 투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재생에너지 개발에 100억 달러(약 14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전기 먹는 하마'인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처를 찾는 것이 AI 경쟁의 관건으로 떠오르면서 MS뿐아

니라 다른 빅테크들도 잇달아 공격적 투자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MS는 이날 글로벌 대체자산 투자사인 브룩필드에셋매니지먼트가 개발하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MS는 이번 투자를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5기가와트(GW) 이상의 신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10.5GW는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센터

인 미국 버지니아주 북부의 데이터센터에서 소비하는 3.5GW 전력의 3배 규모다.

MS는 2030년까지 넷제로(탄소배출제로) 달성 목표에 따라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

MS의 파격 투자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AI와 데이터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월스파고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한 미국의 전력 소비량은 2030년까지 매년 20%씩 급증

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미 미국 여러 주에서 전력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등 현 인프라로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진단이다.

앞서 지난해 5월 MS는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과 2028년부터 매년 최소 50메가와트(MW)의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약 10만 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헬리온은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2021년 3억7500만 달러를 투자한 기업이다.

다른 빅테크들도 태양광, 원자력 등 친환경

경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태양광 스타트업 엑소와트의 2000만 달러 펀딩에 올트먼 CEO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올트먼은 2013년 투자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로 올트로 상장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설립자는 캐나다 핵융합 스타트업 '제너럴퓨전'에 투자했다. 이 회사는 핵융합 실증 시설을 이르면 내년부터 가동해 전기를 생산한다는 목표다.

테슬라는 인도에 전력저장 장치 '파워월'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진영 기자 mint@

# 장애인고용, 함께하는 내일

장애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장애인 고용 기업의 성공을 위해,  
장애인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 장애인서비스**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서비스**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 파월 “다음금리, 인상 아닐 것”... ‘운신 폭 커진’ 韓銀 선택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재차 기준금리를 동결해 이달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석달만에 2%대로 내려앉은 등 대내외적 변수도 등장했다. 한은의 경제전망 수치 조정에도 관심이 모인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금리를 종전의 연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으며 한미 간 금리차도 최대 2%포인트(p)를 유지했다.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이 ‘패파’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한때 있었지만,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면서도 “다음 금리 움직임이 인상 될 것 같지는 않다”고 금리 인상 우려를 불식했다.

연준의 금리 동결과 관련해 최상목 경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주요 금리 인하 시기·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가운데 중동 분쟁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제심을 갖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출장 중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화상 연결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선은 한은으로 쏠린다. 한은은 23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를 연다.

시장에서는 금통위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동 사태와 달러 강세라는 악조건 속에서 4월 물가가 2%대로 떨어진 것은 고무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통위는 작년 1월 기준금리를

소비자물가, 석달만에 2%대 복귀  
국제유가도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올해 성장률 2.4%’ 조정 가능성도  
韓 금리, 美와 탈동조화 움직임 속  
11번째 동결? 23일 금통위에 이목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10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당초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경제적 환경 중 미국의 피벗(통화정책기조전환) 시점은 단연 화두였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늦춰지면서 한국과 미국 간 통화정책의

탈동조화가 거론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타 국가에 주는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이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정책에 대해서 탈동조화가 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미국을 반드시 따라한다, 안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물가 상승의 변화율, 환율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 국내 요인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작년에 비해 훨씬 더 커졌다”고 말했다.

한은은 경제전망 수정치도 함께 발표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전 분기 대비)은 1.3%로 집계됐다. 시장의 예상치 0.5~0.9%를 웃도는 수준인 ‘깜짝’ 성적표였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올해 연간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1%(2월 전망치)에서 2.4%까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서지희 기자·고대영 기자 jhsseo@

##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다시 들쭉 허리 휘는 영끌족, 은행도 속앓이

파월 “금리 인하, 더 오랜 시간”  
美국채금리 오르며 韓금리 압박

‘고정형 금리’ 상단 0.3%p 뛰어  
은행권 “연체율 높아질라” 비상

5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단위: %, 2024년 기준)

	고정	변동
5월 2일	3.48~5.78	3.85~5.99
4월 1일	3.06~5.48	3.90~6.01

※ 출처: 각 사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금리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지면서 국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한풀 꺾인 상황이다. 고금리 속 빚을 내 집을 산 차주들이 치솟는 이자 부담에 더는 버티지 못할 경우 연체율이 우리 경제의 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48~5.78%다. 지난달 1일 기준 5대은행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연 3.06~5.48%였다. 하단과 상단 각각 0.42%포인트(p), 0.3%p 오른 수치다. 다만, 변동형 주담대 금리(신규 코픽스)는 연 3.85~5.99%로 전달 연 3.90~6.01%보다 소폭 내려갔다. 금리를 선반영하는 변동금리 특성상 추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변동금리가 내려갔는데, 미국의 기준금리인하 시점이 늦춰지면서 변동금리도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확실하기 어렵다며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의 장은 “시장이 우려했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차단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확

신은 약해졌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미국채금리도 오름세다. 이날 미 오후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 보다 0.54%p 오른 4.61%에서 거래됐다. Fed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0.22%p 오른 4.95%를 기록했다.

국채 금리는 이후 다시 하락분을 일부 만회했으며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한국 시간 오전 9시 59분 기준 각각 4.966%, 4.634%를 기록 중이다.

미 국채금리 인상은 국내 국고채 금리와 은행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국내 대출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금융권의 연체율이 연일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월 기준 국내 은행의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이 0.5%대로 진입하며 4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상승세를 지속해온 연체율로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10월~11월개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영끌족들의 허리 휘는 이자 부담은 예상보다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시장에서 미국 연준의 9월 금리인하 컨센서스(평균적 기대)가 형성됐지만, 늦춰질 개연성도 있다”며 “한은은 미국을 보고 10월, 11월 인하할 수 있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nova@

저탄소 친환경 기업    사람중심 가치창출 기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ESG 경영 선도 기업

## Action for Positive Change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금융투자 파트너

교보증권이 함께합니다

- 2021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우수B 선정
- 2022 KPCA 최초발간부문 우수상 수상
- 2023 KQ제로인 대한민국 펀드매거진 투자자보호 부문 1위

교보증권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가치를 향상시키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도전과 성의 + 고객중심 + 청직과 성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거래 시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0.14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3호-02637호(2023.07.24 ~ 2026.07.23)

KYOBO 교보증권

# 수출 회복에도 내수 가시밭길... KDI “고금리가 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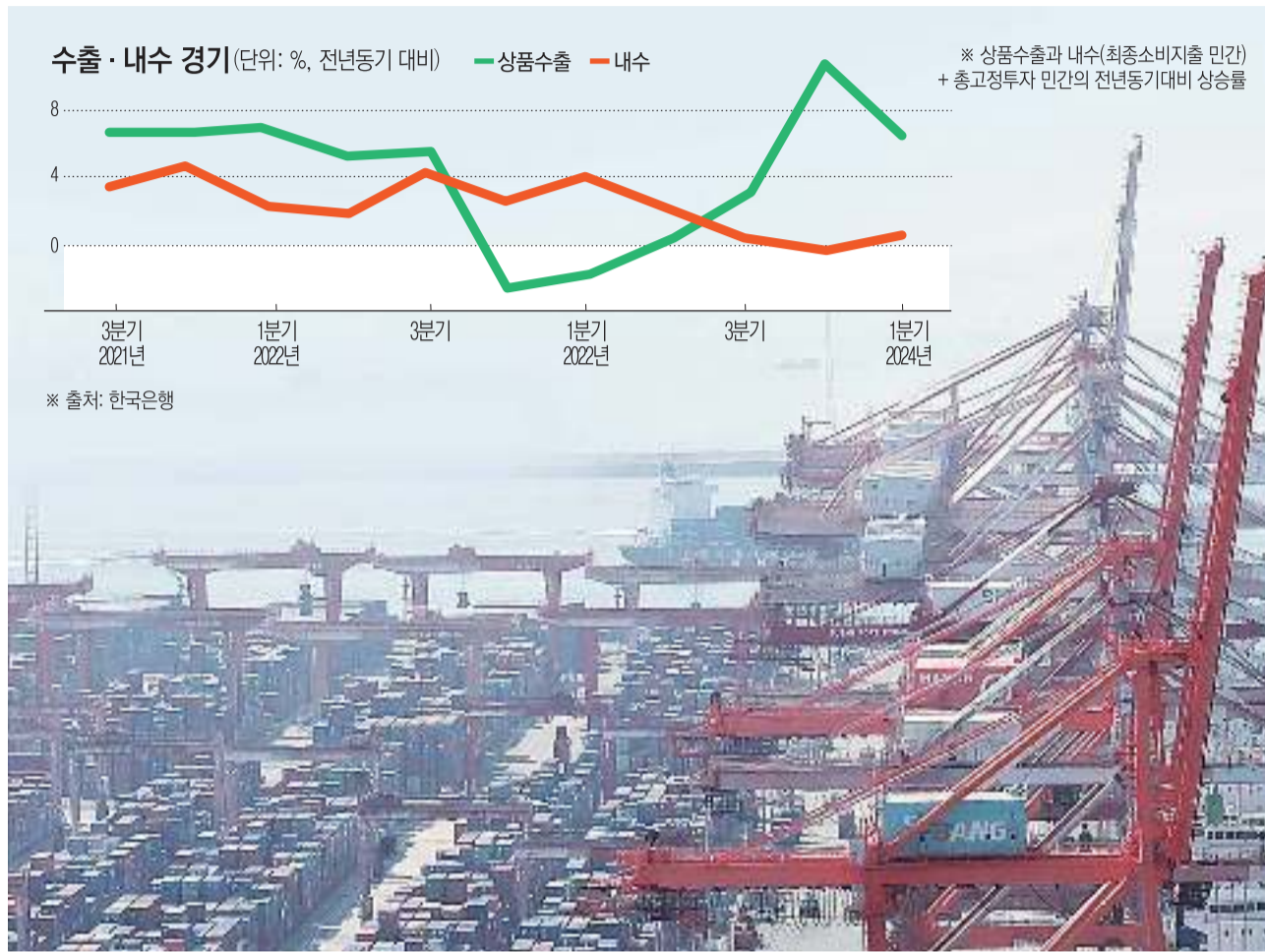
## ‘내수 부진 요인 분석’ 보고서

정책금리 1%p 인상됐을 경우 민간소비 3개분기 뒤 0.7%p ↓ 설비투자는 최대 2.9%p 감소 “내년 긴축완화 시 내수 회복”

최근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투자와 소비를 제약하는 고금리 기조 때문이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KDI는 수출 회복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방향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되면 내년부터 내수 회복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2일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라는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이 2004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20년간 수출·금리와 소비·투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출 증가는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상품수출이 1%p 증가하면 설비투자는 같은 분기에 최대 0.36%p 까지 증가했다. 그 효과는 해당 분기를 포함해 3개 분기에 걸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소비의 경우 상품수출이 1%p



늘면 민간소비가 1개 분기 후에 0.07%p 상승했다. 효과는 약 1년간 이어졌다. 수출이 늘면 소비보다 투자에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효과는 소비에 더 오래 지속된 것이다. 연구진은 이

에 대해 기업은 상품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소비는 단기적으로 크게 변동하기보다는 ‘평탄화(smoothing)’ 경향을 보인 결과라고 해석했다.

반면 정책금리는 1%p 인상되면 민간 소비가 3개 분기 후 최대 0.7%p 감소했으며, 효과는 인상 후 9개 분기까지 지속됐다. 설비투자의 경우 정책금리 1%p 인상에 3개 분기 후 최대 2.9%p 감소

하며 그 영향은 8개 분기까지 지속됐다. 금리 인상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시작해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최근 내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내수 위축의 완화는 누적된 금리인상 효과에도 수출 회복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대된 결과라고 추정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3%였는데, 이 중 내수의 기여도가 0.7%p였다. 작년 1분기(0.4%p), 2분기(-0.8%p), 3분기(0.2%p), 4분기(-0.4%p)보다 기여도가 확대됐다.

연구진은 작년 상반기에는 수출 급락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기 시작했으며, 하반기 들어 금리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본격 나타나면서 내수 위축이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고금리 정책으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는 현상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세) 안정을 위한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통화정책의 결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금리 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물가, 2%대 진입했지만... 金사과·金배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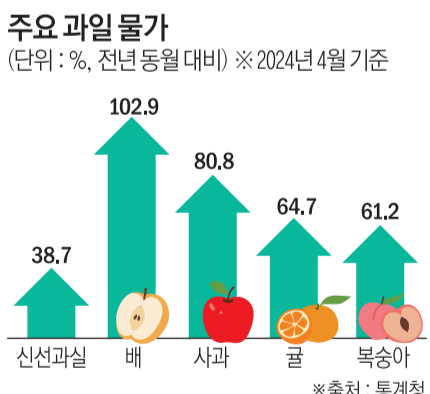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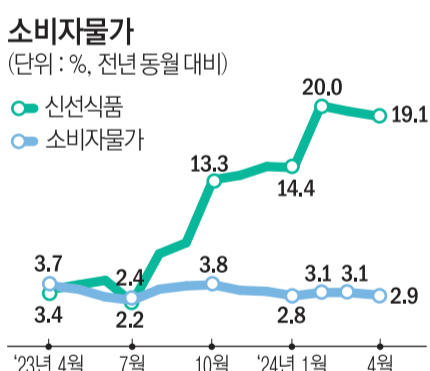
### 4월 물가상승률 2.9%

과일값 강세... 석유류도 상승 농축수산물·서비스 소폭 내려 고유가·환율 등 대외변수 많아 하반기 2%대 안착 쉽지 않아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갔다. 사과·배 등 과일값의 강세가 지속됐고, 국제요인에 따라 석유류도 2개월 연속 올랐다. 전체 농축수산물·개인서비스 물가 등이 소폭 내려 2%대 물가 진입을 견인했지만 상승 압력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중동 리스크와 고금리·긴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 물가 2%대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3.4%)부터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다 올 1월 2%대(2.8%)로 내려갔다.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연속 3%대(3.1%)로 올라섰지만 석 달 만에 2%대로 재진입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0.6% 올랐다. 전년 동월(11.7%)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두 자릿수를 유지한 것은 농산물(20.3%) 영향이 컸다. 사과(80.8%), 배(102.9%) 등 과일값 강세가 지속됐다.



특히 배 가격은 197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다.

반면 고등어(-7.9%), 마늘(-12.3%) 등은 떨어졌다. 낮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망고(-24.6%), 바나나(-9.2%) 등 수입과일은 가격 인하 효과가 두드러졌다. 축산물(0.3%)과 수산물(0.4%)은 안정세를 보였다.

공업제품 물가는 2.2% 올랐고 서비스 물가도 2.2% 올랐다. 석유류가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1.3% 오르면서 3월(1.2%)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근원물가지수는 110.66(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올랐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

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 위주의 생활물가지수는 116.5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5%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135.14(2020년=100)로 전년 대비 3.7%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9.1%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등 대외 변수가 여전한 데다 고금리 속 국내 가계부채도 급증해 정부 목표인 2%대 물가 안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환율, 고유가가 유지되면 3%로 다시 높아진다고 봐야 한다”며 “11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중동 사태가 소강으로 접어들 수 있지만 전쟁은 알 수 없다. 대외 요인에 따른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관세를 낮추고 공공요금 인상을 환율 안정까지 미루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동 사태와 외환 동향, 원자재 가격 추이 등이 하반기 물가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계부채도 큰 규모라 정부가 고금리를 유지하기에 부담이 크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이라 2%대 물가 유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할인 지원 등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석유류 가격 편승인상 등 민생 밀집 분야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 감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 2%대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

## ‘알리·테무’ 아동 완구서 납 158배 검출

### 점토·활동보드 등 사용 부적합 ‘유해성’ 가슴기 살균제 성분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158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선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9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어린이 점토, 활동보드, 색연필(사진) 등 5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물리적·기계적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4월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완구·학용품 9개다. 우선 ‘어린이 점토’ 제품 2종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가슴기 살균제 성분으로도 사용됐던 게 알려져 유해성 논란이 일었으며,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주는 등의 위해성이 있다. 특히 1개 세트의 모든 점토(36가지 색)에서는

붕소가 기준치의 약 39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완구인 ‘활동보드’ 제품 일부 부분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58배 초과 검출됐다. 금속 자동차 장난감은 ‘날카로운 끝’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기준 부적합은 어린이가 갖고 놀다가 찔리거나 베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인기 색연필 세트에서는 12개 색상 중 10개 색상에서 바륨이 기준치 대비 최대 2.3배 검출됐다. 바륨은 피부·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안구·구강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면 위장관 장애·심전도 이상·신경계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첫째 주 완구와 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작으로 이달 내내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죽제품까지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자세한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계획했다”며 “소중한 내아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품 구매 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빈 기자 chaebi@

# 金 “밸류업, 긴 호흡으로 추진... 기업 지원 끝 아닌 시작”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 2차 공동세미나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 2차 공동세미나에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제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사들에 연간 1회 등 주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는 모회사 중복 상장이나 상장사 대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해서도 자율공시를 하도록 권고돼 이른바 ‘조개기(모회사 중복) 상장’과 ‘터널링(지배주주 사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기업의 자율에 의존하면서 제2, 제3의 파다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센티브안도 빠져 있어 기업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남는다.

◇ ‘터널링’ 해소 방안 담아... 이해상충 우려 해소 기대=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투자자가 쉽게 이해

기업지배구조개선 자율공시 권고 중복 상장·터널링 해소방안 담아

자율성 의존, 불확실성만 키워 시장 왜곡할 때 방지 장치 없어 “기업 인센티브 제공 모호” 비판도

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환경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 목차별 작성방법·원칙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 중 핵심지표 선정과 관련해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수익비율(PER)·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배당수익률 등 재무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지표도 강조했다. 특히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배구조를 대표적 비재무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예시로 조개기 상장과 지배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 등을 들었다. 만약 시장에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해 상충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와 재계는 지배구조 개선으로 부딪혔다. 정부는 기업 내재가치(펀더멘털) 향상을 위해 조개기 상장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간 이해 상충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재계에선 공시 내용은 자율이지만 행동주의 펀드, 해외 투기자본 등이 특정 지배구조를 강요할 수 있다며 공시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에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주주 일감 몰아주기 등 ‘터널링 해소 방안’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오너일가가 지분을 많이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거기에만 많은 배당금을 뿌린다는 투자자들의 지적 등에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이를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 자율성에 상당 부분의 의

존하고 있다는 점은 불확실성을 키운다. 아울러 이사회적 적극적 역할도 주문했다. 이사회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시 의결도 거치도록 했다. ◇ 자율성, “퇴로 열어준 꼴” 지적=얼마

나 많은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참여할지는 안갯속이다. 참여 여부부터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모두 기업 자율에 맡겨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기업 스스로 공시를 작성하고 원하는 항목만 넣을 수 있다 보니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과도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정부가 밸류업이 아니라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준 꼴이 된 것 같다”면서 “시장을 왜곡할 때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여 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아직까진 모호하다. 정부는 시장이 기대하는 세제 지원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쉽지 않을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각종 법인세, 배당세 혜택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야당 협조 없인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상인 기자 si2020@ 김호수 기자 ssook@

## “밸류업 프로그램 성과 내려면 稅 혜택·경영권 방어장치 필요”

### 재계·시장 참여자 제언

이사회 ‘충실 의무’ 법제화 목소리도

시장 참여자들과 재계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려면 균형 있는 정책 집행과 제도(상법 개정)적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우선 기업 밸류업을 이끌 컨트롤 타워인 이사회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몫이지만, 이사회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전략을 택할지 경영진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이사회가 해야 한다. 정부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재무·비재무적 요소들을 포함한 ‘밸류업 계획’을 이사회가 수립·이행 과정을 감독하고 필요시 의결도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상법 382조의 3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도 인센티브 확대 등 균형 있는

제도적 보완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상속세·증여 및 법인세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올해 3월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면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역설을 지적하면서 배당 확대를 위해서는 2025년 일몰 예정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환류소득에 배당을 다시 포함시키거나 또는 기업의 주주 배당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주 환원을 늘리는 만큼 경영권 방어 수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영권 상실이나 승계 불안이 누그러져야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결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실적 개선이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법학박사)은 ‘주주 행동주의 부상과 과제’ 보고서에 “한국은 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자사주 매입 외에는 없다”며 “일본은 20년 전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같은 확실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가 부양책인 ‘밸류업’을 추진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



# 의대 증원 1489~1509명... 법원 제동뎀 '입시 혼란' 불가피

## 대교협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제출 결과'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애초 정부가 발표한 2000명에서 1469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의대 총정원은 5058명에서 4487명으로 줄어든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대학별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총정원 4487명은 차의과대 증원분을 제외한 39개 의대 현황 수치다.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이어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차의과대 증원분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은 최종적으로 최소 1489명에서 최대 1509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애초 대학들은 2월 '의대 증원 2000명'을 배분받았지만, 최근 정부가 증원분의 50%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대학별로 최종 증원 규모를 논의해왔다. 이날 모집 제출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9곳은 내년도 의대 증원분의 50%씩 줄인다. 경북대(45명 증원), 경상국립대(62명), 충남대(45명), 충북대(76명), 전남대(38명), 전북대(29명), 부산대

차의과대 제외 1469명으로 줄어

39개 의대 총 정원은 4487명

국립대 9곳 증원분 50% 선발

대교협 이달말까지 심의하기로  
법원은 "이달 중순 이전에 결정"

(38명), 강원대(42명), 제주대(30명)이다.

국립대와 달리 의대 증원 규모가 크지 않은 사립대 상당수는 증원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 중 울산대가 증원분에서 10명을 줄여 70명, 성균관대가 10명을 줄여 70명, 아주대가 10명을 줄여 70명, 영남대가 20명을 줄여 24명, 단국대가 40명을 줄여 40명으로 내년도 증원분을 결정했다. 순천향대는 증원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대교협 심의뿐이다.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다만 본격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단위 : 명)

※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일반대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기 자료에 미포함

지역	대학명	정원	모집인원	지역	대학명	정원	모집인원		
서울	서울대	135	135	대구	대구가톨릭대	80	80		
	경희대	110	110		경남	경상국립대	200	138	
	연세대	110	110	부산대		200	163		
	한양대	110	110	부산	인제대	100	100		
	고려대	106	106		고신대	100	100		
	경기	가톨릭대	93	93	울산	동아대	100	100	
		중앙대	86	86		울산대	120	110	
		이화여대	76	76	전북	전북대	200	171	
성균관대		120	110	원광대		150	150		
	아주대	120	110	광주	전남대	200	163		
인천	인하대	120	120		조선대	150	150		
	가천대	130	130	제주	제주대	100	70		
수도권 소계					3116	1296	충남	순천향대	150
강원	강원대	132	91	단국대(천안)	120	80			
	연세대 분교	100	100	충북	충북대	200	125		
	한림대	100	100		건국대 분교	100	100		
	가톨릭관동대	100	100	대전	충남대	200	155		
경북	동국대 분교	120	120		건양대	100	100		
	경북대	200	155	을지대	100	100			
대구	계명대	120	120	비수도권 소계		3662	3191		
	영남대	120	100	합계		4978	4487		

적인 심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제출 기한은 4월 30일이었지만 일부

대학은 마감일을 넘겨 이달 중순까지 변경안을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두 달 후인 7월 초부터 일부 수시

모집이 시작되지만,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승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한 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다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의대입시는 물론 의대 증원 추진에 '대 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는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 법원이 정지하는 것"이라며 "소송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의대 증원은 잠정 정지돼 기존 정원을 갖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도 일정 부분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판결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어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기 보다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 고2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 의무 반영... 의대 증원 2000명으로

### 2026학년도 대입전형 계획

수시 늘려 80% 모집... 4367명 ↑  
정시 122명 감소... 92% 수능위주  
정부 발표한 의대 증원 기조 유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된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증원분은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이 증원분을 100% 모집할 경우 기존 계획대로 2000명이 유지된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4년제 대학 195곳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6학년도 입시 전체 모집인원은

###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반영 방법

(단위 : 개교) ※ 2024년 4월 30일 기준 ※ 평가방법 및 위주구분에 따라 대학 중복 집계

구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수능	실기/실적
정량평가	112	36	25	109	91
정성평가	7	49	-	5	10
지원자격제한 및 부적격처리	26	9	-	9	13
혼합평가	58	47	19	61	51

34만517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245명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수시모집은 늘고 정시는 줄었다. 수시모집 인원은 전년(27만1481명·79.6%)보다 4367명 늘어난 27만5848명(79.9%)이다. 정시는 전년(6만9453명·20.4%)보다 122명 줄어 6만9331명(20.1%)을 뽑는다.

2026학년도에도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로, 정시모집은 수능위주로 선발하

는 기조가 유지된다. 학생부위주 전형은 교과와 종합을 모두 합쳐 3648명이 전년 대비 늘어 전체 수시모집의 85.9%(23만686명)가 학생부위주로 진행된다. 정시모집의 92.2%는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한다.

2026학년도의 늘어난 정원은 의대와 간호대 등 보건 의료계열 증원분과 비수도권 대학의 만학도 전형 모집 인원 증가에서 나왔다. 올해 2월 정부는 의대 입학 정

원은 2000명, 간호대 입학 정원은 1000명을 증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정원은 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3월 발표한 증원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날 심민철 교육부 인제정 책기획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차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전체 증원분 2000명 기준 1960명을 증원한다"면서 "(증원분) 100% 반영으로 (대학들이) 모집 인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차의과대의 정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대 증원분을 협의해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각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수시와 정시 등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하게 된다.

학생이 받은 학교폭력 제1호 처분(서면사과)부터 제9호 처분(퇴학) 등 단계

에 따라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부터 논술, 수능, 실기·실적 등 각종 전형에서 정량, 정성평가, 지원자격제한·부적격처리, 혼합평가 등이 이뤄진다.

고려대, 연세대 등 총 373개교(중복 포함)가 각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량평가로 반영하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71개교(중복 포함)는 정성평가로 반영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따라 지원자격제한 및 부적격처리를 하는 학교는 총 57개교(중복 포함)이고, 이러한 방식을 혼합해 평가하는 곳은 236개교(중복 포함)에 이른다.

대교협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해 각 고등학교와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정유정 기자 oiljung@

〈참사발생〉

## 551일 만에...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조위 직권조사·영장청구 삭제  
여야합의로 국회의장이 위원장 추천  
'채상병특검법' 野 강행처리... 與 불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 발생 551일 만이다. '채상병특검법'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0·29이태원참사피해자관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

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1일) 이태원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야당이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된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이들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약'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29이태원참사피해자관리보장과진상규명및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안'이 가결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

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주)오뚜기 창립 55주년



# 당신과 <sup>꽃</sup>꽃피운 오뚜기 55년

55년 동안  
여러분의  
사랑 덕에  
응원 덕에  
행복 덕에

오뚜기는  
더 맛있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난 55년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랑에  
더 맛있게 보답하는  
오뚜기가 되겠습니다

#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로... 고준위방폐물법은 '상정 불발'

## 5월 임시회 첫 본회의

전세사기 선 구제 후 비용 회수 민주당, 이달말 법안 통과 방침 방폐물법, 상임위 안열려 삐끗 8부 능선 넘은 경제·민생법안 산업기술보호법 등도 '안갯속'

국회가 5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안건은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 시급한 민생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을 보인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은 이날 처리가 전망됐지만 최종 불발됐다. 제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중재 등으로 처리에 물꼬가 트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다.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본회의와 관련해 고준위방폐물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따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간 제정안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돼 5월 임시회 내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AI(인공지능) 기본법도 이날 소관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진전은

없었다. 이로써 법사위·본회의 통과만을 앞뒤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받는 일부 민생·경제 법안들의 21대 임기 내 처리는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일례로 올해 1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불발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에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크게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 모두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무엇

보다 소관 상임위에서 수차례에 걸쳐 협의가 진행된 만큼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이날 따로 논의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달 7일과 17일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외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5월 임시회 기간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 점도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 "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 무죄 판결 파기해 달라" 감사원, 대법원에 요청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감사 방해 처벌 조항은 강제 조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도 의견서에 포함됐다. 또 이번 사건에서 감사 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권력자의 지시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일수록 관련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삭제할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2월 당시 산업부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 등 3명을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공용 전자 기록 손상, 사무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활동을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징형유예를 받았으나 2심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로 바뀌었다. 감사원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올해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9일로 예정돼 있다. 정영민 기자 oin@

# 50+세대 고품격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5월호 발매



**BRAVO INTERVIEW**

배우 김지영 "이제 복귀일을 사랑해"

**레시피**  
낙지초무침과 오이김냉국

**법률 가이드**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과 논란

**브라보 여행**  
도시 소음을 벗어난 천년 절터, 원주



- PART 1. 참다운 인생 위한 중년의 관계 방정식
- PART 2. 꿀을까, 줄일까, 늘릴까, 내게 맞는 관계 유형은?
- PART 3. '킨 세대' X세대의 무거운 짐, 어떻게 나눌까?
- PART 4. 인간관계에도 트렌드가 있을까?
- PART 5. 누군가가 믿다고요?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 PART 6. "백수라도 당당하게" 은퇴 후 자기소개법
- PART 7. 내 폰안에 인맥 관리 핵심은?

도시문학학자 김시덕 박사 도시의 시간을 걷고, 읽고, 쓰다

**귀능귀촌**  
뒤편 공정의 눈으로 세상을 읽는 여자

**하방비책**  
혼자 사는 시니어, 허리디스크 주의해야 하는 이유



**지역문화유산순례기**  
생생하게 남아 아픈 강제동원 역사 현장



# “엔비디아 넘는 시칩 만들자”... 정부, 차세대 R&D 추진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개최  
내년 신규 R&D 62개 선정하고  
플래그십 12개 선별... 1등 도전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도 발표  
“민간투자 어려운 분야 예산 집중”

엔비디아(NVIDIA)를 능가하는 자율주행 차량용 인공지능(AI) 가속기 반도체, 미국 에이브럼스 X를 뛰어넘는 차세대 전자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신개념 장주기 열저장(카르노) 배터리 등 정

부가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차세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62개 2025년 신규 R&D 사업과 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을 심의했다.

산업부는 선별된 핵심 투자 분야의 62개 신규 사업 중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면서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12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세계 최고 성능의 자율주행 반도체가 우선 꼽힌다. 산업부는 엔비디아 이상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를 위해 1000 TOPS(초당 1조 번의 연산)급 범용·개방형 차세대 차량용 AI 가속기 반도체 기술개발에 나선다. 현재 엔비디아는 1000 TOPS급 차세대 자율주행칩의 개발·상용화를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수십~300 TOPS 이하 성능의 자율주행칩 개발이 진행 단계에 있다.

산업부는 완전자율주행 수준을 의미하는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 10초당 기가비트(Gbps) 이상 초고속 자율주행차 네트워크 시스템 및 핵심반도체의 세계 최초 상용화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차세대 방산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의

차세대 전자 에이브럼스X를 능가하는 무인 복합 차세대 전자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기술 개발에 도전한다. 해당 기술은 에이브럼스X도 현재 시제품 수준이며, 양산 개발 단계에 이른 상태다. 열 또는 기계에 기반한 비전지 에너지저장 및 차세대 전력망도 신규 R&D 사업안에 포함됐다. 500메가와트(MW)급 대용량장주기 카르노 배터리 상용화 기술개발과 압축공기저장 200MW급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개발, 원전 탄력운전 핵심기술 개발 등이다. 이밖에 실제감과 시청각 안정성을 제공하는 무(無)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과 안정성이 보장되고

상용화 수준의 ‘8분 이내’ 초고속 충전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수립한 11개 분야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주력 산업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미래차용 차세대 배터리·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로봇8대 핵심 기술 △AI 자율제조 통합 솔루션 △군용 위협탐지·대응 AI 무인로봇 개발 등 5개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2025년 산업에 나간 신규 R&D 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연구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2일 맥도날드는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렸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햄버거, 치즈버거, 더블치즈버거, 트리플치즈버거는 100원 올랐고 불고기버거는 300원, 에그불고기버거는 400원 인상됐다. 빅맥세트 가격은 6900원에서 7200원으로 300원 올랐고, 맥스파이스상하이버거세트는 6900원에서 7100원으로 200원 인상됐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 김밥·라면 날개 돋친 듯 팔렸다 K푸드 4월까지 수출 ‘역대최대’

4.3조 규모로 동기 대비 6% 올라  
쌀 가공식품 42%·라면 34% 급증  
中·日 수출, 소비 침체 등으로 감소

건강식과 한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K푸드 수출이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4월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6.2% 증가한 31억2000만달러(약 4조3056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냉동 김밥을 포함한 쌀 가공식품, 라면, 음료, 김치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8800만달러로 42.1% 늘었고 라면은 3억7890만달러로 34.4% 증가하며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라면은 유럽에서 안전성 이슈가 해소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며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공격적인 마케팅도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과자류 수출액은 2억2740만달러로

9.9% 증가했고, 음료 수출액은 2억1170만달러로 15.9% 늘었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김치 수출액이 6.8% 늘어난 5730만달러로 집계됐고, 포도 수출액은 1000만달러로 20.4% 늘었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4억787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15.9% 증가했다.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액(2억3080만달러)은 33.1% 늘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편의점 등 새로운 유통망을 통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 아세안 시장으로의 수출액은 6억3130만달러로 5% 증가했다. 다만, 중국의 경우 소비 침체가 지속되며 수출액이 4억3990만달러로 1.8% 감소했고, 일본으로의 수출액도 엔저 현상 여파 등으로 4억5230만달러로 5.7% 줄었다.

농식품부는 해외 시장 개척 등 부처 간 협업을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협업체 회의를 매월 한 차례씩 열 예정이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 수원·용인에 ‘급행버스’ 첫 도입... “출퇴근 30분 단축”

국토부, 수도권 남부 교통 대책  
급행버스, 주요 정류장만 정차  
청계IC~과천IC 시간제 버스차로  
명동·강남 광역버스, 노선 조정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버스 이용객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청계 나들목(IC)에서 과천IC까지 시간제 버스 전용차로가 도입된다. 양재역에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광역버스의 존도가 높은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 향상 등 버스 서비스 개선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남부지역 광역버스 이용객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하반기까지 경기도와 협의해 지방도 309호선 청계IC에서 과천IC까지 총

6.3km 구간에 시간제(오전 6~9시, 오후 5~8시) 버스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당·양재역 등으로 이동하는 남부지역 총 27개 노선버스(승차인원 약 7만 명 추정)의 출퇴근 운행시간이 29분에서 5분으로 최대 24분 단축된다. 향후 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하고 추가 도로 신설도 검토한다.

내년부터 성남시에는 남한산성에서 서울 북정역까지 총 10.2km 구간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차례로 도입한다. 67개 노선버스(승차인원 약 8만 명 추정)의 운행시간이 최대 14분(31→17분) 단축될 전망이다.

수원·용인에는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급행버스를 최초로 도입한다. 기존 노선 대비 운행시간은 최대 30분 단축된다. 높은 만차율 해소를 위해 좌석 예약제 적용노선(37→53개)과 횡수(81→118회)도 대폭 확대한다.

대광위는 또 광역버스 수송력 확대를 위해 2층 전기버스 40대를 수원·화성·용인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출

퇴근 버스도 만차 운행이 잦은 노선에 집중 배차한다. 수요 맞춤형 출퇴근 전세버스를 용인·시흥·성남·화성 등에 14회 규모로 추가 투입하고 광역버스 5개 노선을 신설한다. 교통사각지대(수원 당수지구, 용인 서울병원)에는 광역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를 운영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에 따라 동탄신도시 외곽지역과 동탄역을 연결하는 7개 노선을 추가 확충해 접근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최대 600~1000명의 GTX-A 수요 증대가 기대된다.

대광위는 명동과 강남의 도심 내 광역버스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노선을 분산 및 조정한다. 명동 경유 광역버스 노선은 회차경로(남산터널→소월길)와 정류장을 조정(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한다. 이를 통해 남대문세무서를 통과하는 광역버스 대수가 시간당 143대에서 106대로 감소, 운행시간(서울역~순천향대병원 구간)이 최대 8분 단축(36→28분)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SM 음원 띄우기’ 등 경쟁 제한 우려  
독립된 점검기구가 3년간 감시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이 1년여 만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음원 1위’ SM과 ‘유통·플랫폼 1위인’ 카카오가 합쳐진 음원 시장 ‘공룡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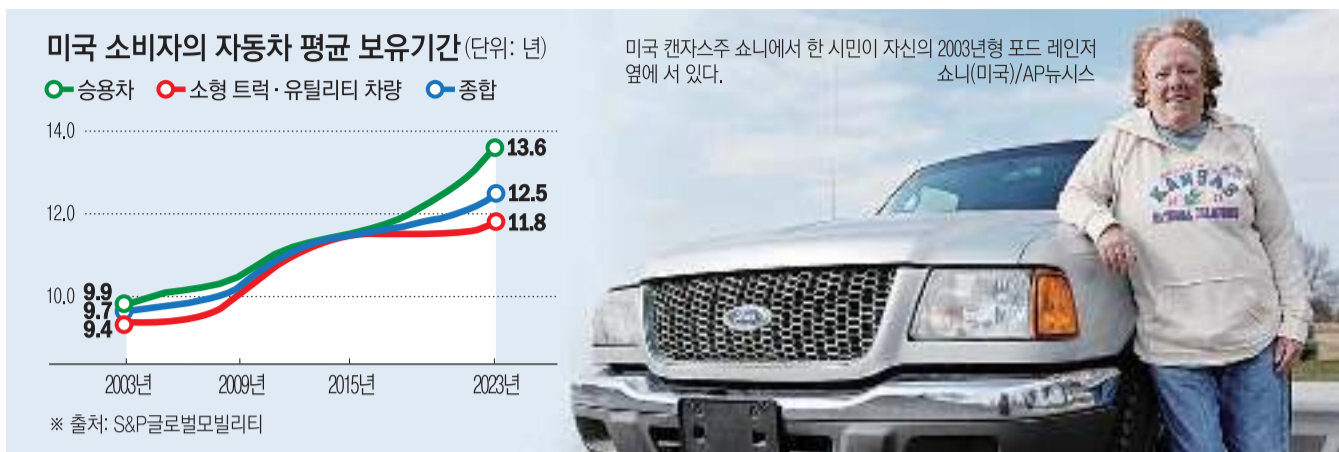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장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이상의 외부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3년간 시장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장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정희는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시장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 인플레이에 쪼그라든 美 소비... 자동차 폐차 직전까지 탄다

車 보유기간 12.5년... 사상 최고  
전년보다 3개월 ↑ ... 6연속 증가  
고금리 탓에 판매·대출비 상승  
보험료도 전년비 22%나 경증  
신차 구매 꺼려 산업 악영향 우려



미국에서 높은 인플레이션 탓에 자동차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오래 타는 소비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소비자의 자동차 평균 보유 기간은 전년보다 3개월 이상 늘어난 12.5년으로, 6년 연속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고속도로국 집계에서 10년 이상 된 자동차 비중은 1977년 16.9%에서 2022년 44.2%로 대폭 늘어났다.

고금리에 따른 자동차 대출 비용 증가,

판매 가격 상승, 차량 수명 연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차를 바꾸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 가이드인 에드먼즈에 따르면 3월 미국의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은 4만 6660달러(약 6429만 원)로, 3년 전 3만 9950달러에서 크게 높아졌다.

특히 날이 갈수록 치솟는 자동차 관련 비용은 신차를 구매하는 대신 기존 차를

빌 수 있는 한 오래 갖고 있으려는 분위기에 불을 붙였다. 미국 노동부는 3월 자동차 수리 및 유지관리 비용이 전년 동월보다 8.2%, 보험료는 22.2% 각각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또 최신 자동차 모델의 경우 수리 비용이 더 비싸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센서나 화면 등 신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경우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수리도 큰 수리 비용을 들여야 할 수 있다.

자동차 관련 비용 증가가 고물가로 이

어지고, 또 고물가가 고금리 장기화를 유발, 신차 구매를 억제하는 악순환도 지속하고 있다. WSJ는 “자동차 비용 증가는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초래한 다양한 원인 중 하나”라며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지 않으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더 뒤로 밀리고, 이로 인해 자동차 대출이 더 비싸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를 꺼리게

되면서 자동차 관련 산업에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제조업계는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성장세가 뚜렷하게 둔화된 전기차 시장의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초기 수요 충족, 중전의 불편함, 보조금 축소,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인해 작년부 터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반면 차량 서비스 업계에는 평균 차량 연식의 증가세가 도움이 된다. 자동차를 오래 보유한다는 것은 차량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수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토드 캠퍼우 S&P글로벌모빌리티 애널리스트는 “전통적으로 애프터마켓 수리에 있어 최적의 시기를 6~11년으로 간주했으나, 평균 차량 연식이 12.5년으로 높아지면서 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며 “12년 이상 된 차량이 거의 1억 2200만 대에 달한다”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 “학살 못 참아” 이스라엘과 등 돌리는 세계

콜롬비아, 외교 관계 단절 선언  
가자지구 공습 반기 국가 늘어나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휴전 협정과 별개로 가자지구 라파 침공을 고수함에 따라 이스라엘에 등 돌리는 국가들이 점차 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노동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2일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페트로 대통령은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정부와 총리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이유에서 단교하기로 했다”며 “팔레스타인이 죽으면 인류도 죽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콜롬비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과 단교한 세 번째 중남미 국가가 됐다. 앞서 볼리비아와 벨리즈가 먼저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끊었다.

콜롬비아의 단교 소식에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구스타보 페트로가 아기를 불태우고 여성을 강간한 가장 가증스러운 괴물의 편에 서기로 했다는 것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반기를 드는 국가들은 계속 늘고 있다. 칠레와 콜롬비아는 이스라엘에 머물던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송환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제노사이드(대량학살)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그는 “출산 중인 여성이 병원에서 죽거나 아이가 마취 없이 다리를 절단하는 대신 죽음을 택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휴전을 촉구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이수라장된 美 UCLA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반전 시위로 미국 대학가가 견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에서 1일(현지시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친이스라엘 시위대가 충돌,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신화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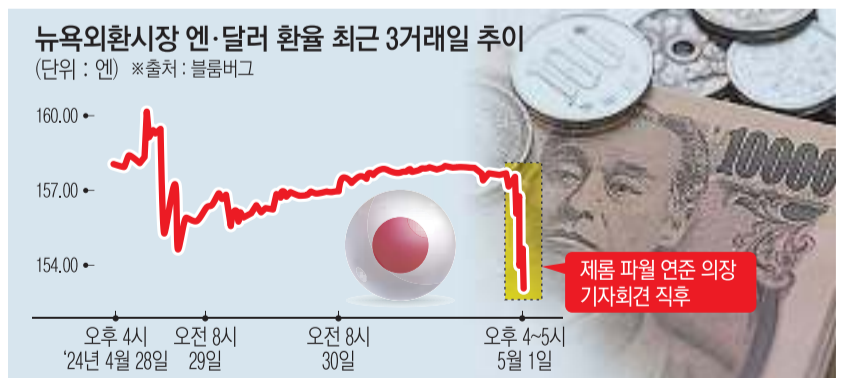
## 日 정부, 또 ‘복면 개입’ ... 엔·달러 환율 ‘뚝’

FOMC 직후 엔화 가치 급등  
올해 두번째... 日 당국 함구

엔·달러 환율이 1일(현지시간) 또다시 급변동했다. 시장에서는 일본 금융당국이 또 한 번 ‘복면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투자 전문매체 마켓워치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외환시장에서 이날 엔·달러 환율은 오후 들어 3%에 달하는 변동성을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인 오후 2시께 엔·달러 환율은 157엔 후반대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이자 뉴욕증시가 마감한 시점인 오후 4시 30분 153엔 선으로 급락했다.

블룸버그는 일본 당국이 지난달 29일에 이어 이번 주 두 번째로 외환시장



에 개입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뉴욕 외환시장 장막판 40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 이상의 엔화 관련 선물거래를 그 근거로 들었다.

우에노 다이사쿠 미쓰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 수석 외환시장 전략가는 “일본 재무성이 시장에 개입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금융당국이 엔·달러 환율의 최종 방어선으로 160엔을 설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다카후미 미쓰비시 UFJ 트러스

트뱅크 트레이딩 책임자는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 미국 채권 금리와 달러화는 하락했지만, 엔화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 일본 당국이 뉴욕 장 마감 무렵에 또 개입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앞서 지난달 29일 엔·달러 환율이 160엔대를 돌파했다가 갑자기 154엔선으로 떨어진 것도 일본 정부 개입 결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 금융당국은 시장 개입 여부를 함구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퀄컴, AI 인기 타고 실적 ‘쑥쑥’

매출·순이익의 시장 예상 웃돌아

세계 최대 스마트폰 프로세서 제조업체 퀄컴이 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폰’의 인기로 시장을 웃돈 실적을 공개한 것은 물론 전망도 낙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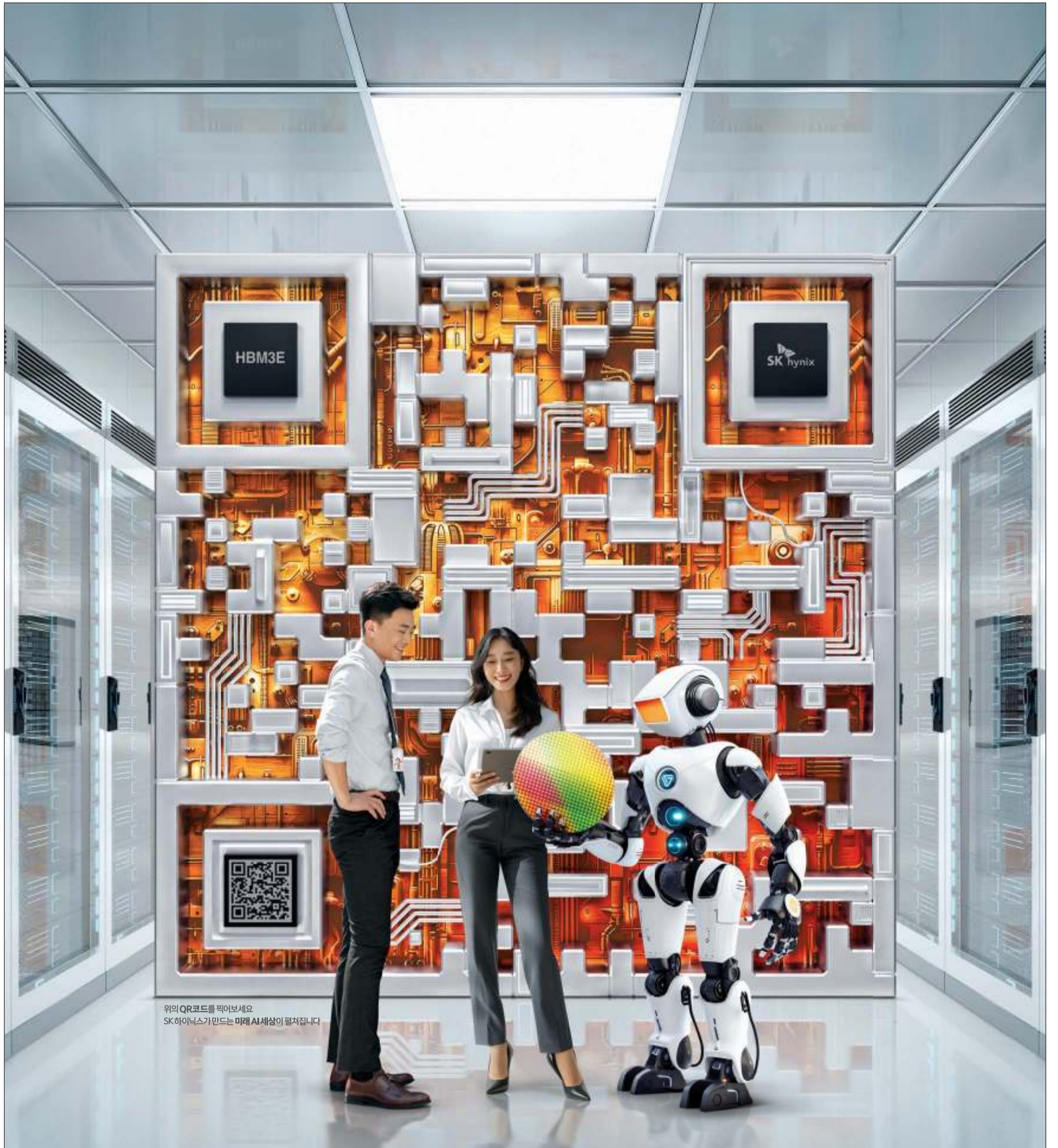
이날 퀄컴은 2024 회계연도 2분기(지난해 12월 25일~올해 3월 24일) 매출이 93억 9000만 달러(약 13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 93억 4000만 달러를 상회한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23억 3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7% 늘었다. 주당 순이익은 2.44달러로 시장의 추정치 2.32달러를 웃돌았다. 전망도 낙관했다. 3분기 매출 전망치를 92억 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90억 5000만 달러보다 높

다. 동일 기간 주당 순이익 예측은 2.25달러로 시장의 2.17달러를 웃돌았다.

최첨단 칩이 필요한 AI 폰이 중국에서 인기를 끈 것이 퀄컴 실적 호조로 이어졌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경영자(CEO)는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중국의 안드로이드폰 시장이 회복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중국 소비자들이 AI 챗봇을 사용할 수 있는 고가의 기기를 구매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실제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통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아몬 CEO는 AI 폰 대표 사례로 올 초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울트라’를 꼽으면서 “프리미엄 기기에 생생한 AI가 탑재된 최초 사례를 보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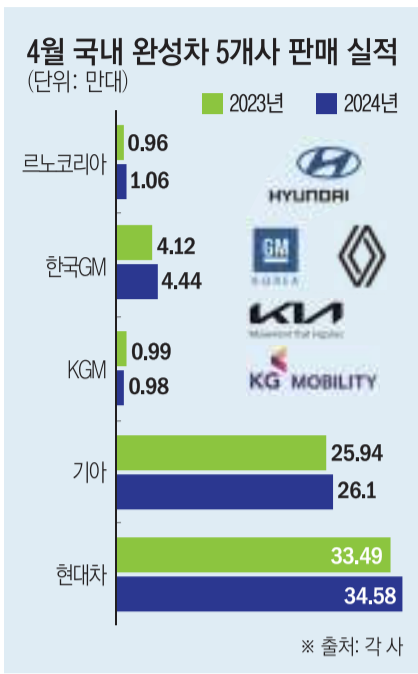
# 車 판매 2.6% ↑... 내수 줄었지만 수출로 만회

4월 국내 완성차 5개사 내수 7% 줄고 수출 5% 늘어 총 67만대 실적 KGM 제외한 4개사 판매 증가 현대차 "해외 수요 탄력적 대응"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2.6% 늘어난 67만 1175대를 판매했다. 5개사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내수 판매는 감소했으나 수출 물량이 늘면서 실적을 방어했다.

2일 현대자동차·기아·GM한국사업장·KGM모빌리티·르노코리아 등 국내 완성차 5개사의 4월 실적 판매를 보면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7.3% 줄어든 11만8978대, 수출은 5.0% 증가한 55만2197대로 집계됐다.

지난달 완성차 5개사 모두 내수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수출 물량이 늘면서 현대차·기아·GM한국사업장·르노코리아 등 대부분이 업체에서 전년 동월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 다만 KGM모빌리티는 내수 판매 감소 폭이 수출 증



가분을 넘어서며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업체별로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6만 3733대, 해외 28만2107대 등 전년 같은 달보다 3.3% 증가한 34만5840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4.4% 감소했지만, 해외 판매가

5.2% 증가하며 전체 판매량이 늘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지 수요와 정책에 적합한 생산·판매 체계를 강화하고 권역별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지난달 국내외 시장에서 총 26만1022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한 4만7505대를 판매했다. 해외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한 21만3081대를 기록했다.

GM한국사업장은 지난달 국내외에서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한 총 4만4426대를 판매하며 22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늘어난 수출 물량이 내수 부진을 상쇄했다. GM한국사업장은 지난달 해외 시장에 전년 동월 대비 17.0% 증가한 총 4만2129대를 판매했다. 특히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파생모델 포함)가 전년 동월 대비 96.3% 증가한 2만6134대 해외 시장에 판매되며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달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56.1%

감소한 2297대로 집계됐다.

르노코리아의 4월 판매 실적은 내수 1780대, 수출 8792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4% 증가한 1만572대로 집계됐다.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으나 수출이 13% 늘어 실적이 반등했다. 내수 시장에서는 쿠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르카나(구 XM3)가 962대 판매되며 최다 판매 모델에 올랐다. 아르카나는 해외 시장에서도 전체 수출 물량의 95.1%인 8367대가 판매되며 실적을 이끌었다.

KGM은 지난달 올해 4월 내수 3663대, 수출 6088대를 포함 총 9751대를 판매했다. 수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 판매 물량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한 수치다.

내수 판매는 토레스 신차 효과 소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4%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수출은 튀르키예, 호주, 헝가리 등으로의 판매가 늘며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6000대 판매를 넘어서는 등 전년 동월 대비 40.1% 증가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 루마니아 원전 개보수 배관 두산에너지빌, 1520개 계약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캐나다 캔두 에너지(Candu Energy)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원전 1호기용 피더관(Feeder Pipe)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피더관 수주는 중국과 캐나다 원전에 이어 다섯 번째다.

피더관은 가압중수로형 원전 주요 설비로 원자로 온도를 조절해 주는 냉각재가 흐르는 배관이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캔두 에너지에 2027년까지 총 1520개의 피더관을 공급할 예정이다.

캐나다 가압중수로형 모델인 루마니아 체르나보다원전 1호기는 2026년 운전허가일이 만료돼 30년 추가 운전을 위한 설비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산이 공급하는 피더관은 이 설비개선사업에 사용된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 안saldo 뉴클리어 컨소시엄은 이 원전의 설비개선사업 3단계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2022년 1조6000억 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측 건설공사 △2021년 중국 쉬다보 원전 3, 4호기, 탄원 원전 7, 8호기의 계측제어 기자재 △가압중수로형 원전 4기(중국 진산 3단계 1, 2호기, 캐나다 포인트 레프루, 브루스 6호기)의 피더관을 수주하는 등 꾸준히 해외 원전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 현대로템 '차륜형 장갑차' STX 손잡고 페루 첫 수출

중남미 최초 진출... 6000만불 규모

현대로템과 STX는 페루 육군 조병창이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최종 계약 후 STX를 통해 페루 육군에 차륜형 장갑차 K808 '백호' 30대를 공급한다. 계약 규모는 약 6000만 달러다.

K808은 우리 군의 제식 차륜형 장갑차로 우수한 기동성을 기반으로 전방의 야지에서도 신속한 병력 수송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현대로템 차륜형 장갑차의 첫 수출이자 국산 전투 장갑 차량의 중남미 지역 최초 진출 사례다. STX는 현대로템의 장갑차를 페루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과 STX는 이번 1차 30대 물량을 시작으로 향후 120대까지 공급 계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K808의 첫 수출 달성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영향을 끼쳤다.

국방부는 페루 육군 실사단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고속기동-대테러 등 K808의 전술 운용 장면 등을 실물 차량으로 시연하며 성능과 기능을 알렸다. 또한, 차량의 정비체계와 관련 시설까지 직접 소개하는 등 구체적인 운용 사례를 시연했다.

방사청 역시 실사단 방문 당시 현대로템의 차륜형 장갑차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화된 장비임을 소개했다. 또한, K808의 기술적 우수성은 물론 시험평가 및 실제 운용을 거치면서 입증된 성능임을 적극 알렸다.

STX도 중남미 상사 네트워크 역량을 바탕으로 결정적 역할을 했다. STX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페루 정부에 총 9000만 달러 규모의 500톤급 해상경비함 6대에 대한 설계 납품을 진행했고, 2대의 후속함도 지난해부터 생산 중이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 삼성전자 "AI 통역 써보세요" 해외여행객 꺾S24 무료 대여

삼성전자가 인천공항에서 '갤럭시 S24' 무료 대여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고객들에게 여행지에서 더 유용한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rch)', '통역' 등의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다음달 9일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14세 이상 누구나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선착순 한정 수량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모두투어 홈페이지의 이벤트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큐맥스급〉

## “대형 LNG선 수익성 나쁘지만...” 고개 젖던 조선3사 수주 도전장

기존 선박보다 저장용량 50% 커 카타르에너지, 중국에 18척 발주 시장규모 확대에 한화오션 '전향'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 변화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주력 LNG 운반선 대비 더 큰 크기인 '큐맥스(Q-Max)'급 발주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 중에선 한화오션이 큐맥스급 수주에 전향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카타르에너지가 최근 중국선박그룹(CSSC) 산하 후동중화조선과 큐맥스급 LNG 운반선 18척에 대한 약 60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올 초만 해도 8~10척 정도 계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주 물량이 2배 가량 늘어났다.

큐맥스급은 26만 제곱미터(㎡) 이상의 LNG 선박을 뜻한다. 이는 지난 몇 년간

LNG 운반선 발주 물량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17만4000㎡급 선박보다 50%가량 크다.

큐맥스급은 크기 문제로 전 세계 20~30%의 LNG 터미널에 정박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다. 하지만, 기존 17만4000㎡급 선박보다 한 번에 더 많은 운송이 가능해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 이에 카타르 측은 향후 있을 LNG 운반선 추가 발주에서도 큐맥스급을 더 원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카타르 측은 국내 조선사에 먼저 큐맥스급 건조를 문의했다. 그런데도 중국 조선사가 이번 물량을 수주한 것은 국내 조선 3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 3사 입장에서는 큐맥스급 1척을 건조하는 것보다 기존 17만4000㎡급 선박을 2척씩 병렬 건조하는 것이 수익성 면에서 좋다. 조선 3사는 17만4000㎡급 선박을 대당 약 2억3000만 달러에 계약했고, 후동중화조선은 큐맥스급을 대

당 약 3억1000만 달러에 계약했다.

물론 업계는 국내 조선 3사가 앞으로 큐맥스급 건조를 지금처럼 고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LNG업계 큰손인 카타르 측의 큐맥스급 발주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큐맥스급 건조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향후 대규모 발주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조선 3사 중 큐맥스급 선박 수주에 가장 전향적인 곳은 한화오션이다. 한화오션 측은 "카타르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추가 수주 문의를 진행 중"이라며 "큐맥스급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올해 중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D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향후 시장 상황에 맞춰 큐맥스급 건조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 태국 철도청 신호제어 시스템 LS일렉트릭 177km 구간 수주

LS일렉트릭은 2일 태국철도청으로부터 태국 반파이-농폭을 연결하는 177km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주금액은 327억 원이다.

태국 철도 신호제어시스템 사업은 유럽 메이저 기업들이 주도하던 시장이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약 554억 바트(약 2조원) 규모로 태국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반파이-농폭-사판 미트라팜을 연결하는 총 연장 354km 철도 복선화사업 2구간 중 제1구간이다.

LS일렉트릭은 2001년 태국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 1단계 사업(ST1)을 수주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현지 시장에 진출한 이후 2007년 4단계(ST4), 2015년 5단계(ST5), 2020년 동부선과 북부 단차이-응아오 구간 사업을 잇달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반파이-농폭 구간 사업자 선정으로 현지 시장 점유율 50%, 누적 수주액은 2000억 원을 넘어섰다.

LS일렉트릭은 태국 등 아세안 국가 철도 인프라 개선 사업 확대에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현지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국도면적이 한반도 2.3배에 이르는 태국은 남북과 동북부를 잇는 총 연장 4346km에 달하는 철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남아 물류허브 구축과 스마트시티 건립을 중심으로 한 동부경제회랑(EEC) 건설의 중추 인프라를 항공과 해상 그리고 철도를 통해 연결하는 국토건설사업을 가속화 있다. 특히 방콕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29년까지 도시철도 9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abc123@

# 코웨이 '4兆 클럽' 정조준... 비렉스·해외사업 강드라이브

## 올해 역대 최대실적 '승부수'

오프라인 체험매장 공격적 확장  
전체 매출서 비렉스 비중 2배 확대  
정수기·공기청정기·매트리스 등  
태국·인니·베트남 新시장 공략

코웨이가 오프라인 브랜드 체험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한다.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비렉스' 브랜드를 내세워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전체 매출 비중의 10%인 비렉스 브랜드를 올해엔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웨이 올해 연결 매출은 4조2591억원, 영업이익은 7778억원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3%, 6.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엔 매출 3조9665억원, 영업이익은 7313억원



을 기록했다.

비렉스를 브랜드를 내세운 오프라인 매장 확대와 함께 해외 법인 성장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평가다. 박신애 KB증권 연구원은 "코웨이는 해외 매출 성장률이 올해부터는 8~10% 상승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시장에서 '비렉스' 라인업 시장점유율 상승세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단가가 높은 '비렉스' 제품 매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국내부문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봤다.

최근 코웨이는 비렉스 브랜드를 내걸은

12번째 직영매장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오픈했다. 코웨이는 연마다 2개씩 열린 매장을 작년엔 6개, 올해는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분당 직영점은 강남 직영점, 용인 직영점, 용산 직영점 등이인 코웨이의 12번째 직영 매장이자 수도권에서 8번째 직영 매장이다.

이같이 공격적으로 체험매장을 확대하는 데에는 제품의 디자인과 색상, 기능 등이 다양해지며 제품을 체험해보고자 하는 수요가 지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웨이는 이를 통해 고객 접점을 강화하고 제품

판매 확대에도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서장원 코웨이 대표이사도 올해 신년사에서 "스마트 매트리스, 펄스체어, 안마베드 등 혁신 제품군들로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슬립·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BEREX)'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 선보여 '글로벌 코웨이'로서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코웨이는 비렉스를 통해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해외에서는 정수기·공기청정기·매

트리스 등을 통해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코웨이는 현재 말레이시아,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8개 법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코웨이의 해외사업 매출액은 1조4307억 원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사업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에는 36%를 기록하며 명실공히 글로벌 환경기전기업으로 발돋움했다. 특히 코웨이 해외 사업을 대표하는 말레이시아 법인은 기존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매트리스 카테고리엔 안마의자와 에어컨 등 신규 제품을 속속 도입하며 추가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꾸준한 성과를 내는 말레이시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략적 행보를 펼칠 것"이라며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규 시장에서도 성공신화를 넓혀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 음식점 '종이 영업신고증' 48년 만에 보관의무 폐지

### 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편의점 위생교육 온라인 전환 등  
80개 과제 연내 85% 완료 목표

식당에 비치된 종이 영업신고증이 48년 만에 사라진다. 식품 영업등록을 신고할 때는 교육이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목표가 담긴 8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식약처는 2022년 '규제혁신 1.0'과 지난해 '규제혁신 2.0'을 통해 총 180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국민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새롭게 발굴한 80개 과제는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등을 핵심 키워드로 분류했다. 이날 식약처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10개 대표 과제를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법률 개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80건 중 68건)을 올해 완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편의 향상 과제에 방점이 찍혔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가 48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영업신고증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해 판매할 경우 받는 위생교육은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수강도 가능토록 간소화한다.

오 처장은 "영업신고증 온라인 전환으



오유경(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로 영업자의 관리 부담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위생교육의 시간적 부담도 완화해 소상공인이 생업에 집중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민원 해소 과제에도 힘이 실렸다. 식품영업등록 신고 시 제출하는 교육이수증은 직접 제출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식품 소매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도 이동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 처장은 "영업자가 각종 변경허가와 신고를 일일이 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오지, 산간 지역 거주자도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인공지능(AI)과 신기술을 적용한 산업 발전 지원 과제도 발굴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마련해 첨단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식약처는 인허가 심사 기준과 절차 관련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구축해 정부 부처 가운데 최초로 2025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한성주 기자 hsj@

새로움의 기초가 되다  
건설기초소재 분야 선도기업 삼표

삼표그룹 사업분야

건설기초소재  
시멘트/레미콘/골재  
분체/물필/PC/PHC

신사업  
부동산 개발

철도  
개도용품/PSTS/개도공사

물류 SI  
System Integration

R&D

리사이클링  
환경자원/철스크랩

기술연구개발/콘크리트

IT/자동화시스템/운송/허역

SAMPYO Industry

SAMPYO Industry SAMPYO Cement SAMPYO P&C SAMPYO Railway SP NATURE SP S&A

# ‘데이터 패권전쟁’ 뛰어든 일본... ‘韓日 경제안보’ 어디로

## “라인야후 지분 팔아라” 네이버 압박하는 일

라인야후를 공동경영하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배구조 논의가 경제 안보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가 라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지배력을 줄이려는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조만간 소프트뱅크와 지배구조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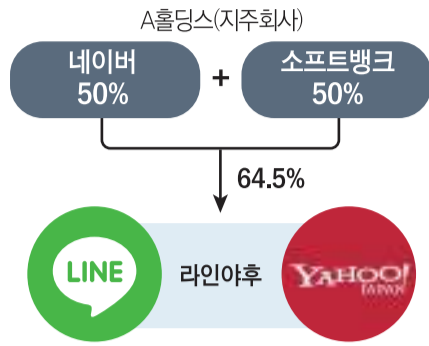
2일 IT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달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한국에서 라인야후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됐는지 네이버 등에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요청했다. 일본에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이미 국내에서 조사를 마무리한 사안에 대해 일본 측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라인 개인정보 유출’ 행정지도 소프트뱅크에 자본적 관여 요청 네이버는 “다각도 검토 후 조치” 소프트뱅크와 지배구조 논의 돌입

일본 정부의 요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자국 보호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이나 EU(유럽연합)의 데이터 패권전쟁에 일본이 뛰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1년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라인은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본 국민 메신저’다. 일본을 포함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라인 가입자

## 라인야후 지분 관계



는 현재 2억 명에 이른다. A홀딩스는 라인과 포털 야후재팬 등을 서비스하는 상장사인 라인야후의 최대주주(64.5%)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기술 개발은 네이버가 맡고 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압박을 가하는 이유

는 일본 내에서 라인 메신저의 영향력 때문이다. 라인의 국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원인으로 네이버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내린 것. 이와 동시에 소프트뱅크에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적 관여를 강화하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을 매각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어떤 방향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지 경영진이 판단한 이후에 후속조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번 사안이 한일 외교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입장을 정리

한 후 양국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A홀딩스의 공동대표이사 회장, 미야우치 켄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가 A홀딩스 공동대표 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주회사 A홀딩스의 네이버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네이버는 측에서는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와 협의해왔으며 앞으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정부와 네이버는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네이버 측 요청 사항을 전적으로 존중해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황성우 삼성SDS 대표가 2일 서울 송파구 잠실캠퍼스에서 열린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기업용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패브릭스(FabriX)와 브리티 코파일럿의 출시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 브리티 코파일럿·패브릭스 출시...회의록 쓰고 이메일·문서관리도 ‘척척’

# 삼성SDS, 생성형 AI로 ‘기업 업무 혁신’ 이끈다

“패브릭스는 (삼성의) 거의 모든 관 계사에서 사용 중입니다. 브리티 코파일럿은 2분기 삼성전자 도입을 시작으로 전체로 확산할 것입니다.”

황성우 삼성SDS 대표는 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성SDS 타워에서 미디어 데이를 열고 자사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패브릭스’와 ‘브리티 코파일럿’을 출시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9월 약속드렸던 패브릭스와 브리티 코파일럿을 정식 출시했다”며 “기업의 오피스에서 자동화가 잘 되지 않던 부분을 크게 개선해 ‘하이퍼오토메이션(초자동화)’을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브리티 코파일럿은 메일, 메신저, 미팅, 문서관리 등 기업의 공통 업무를 지원하는 협업 솔루션 브리티 워크스(Brity Works)에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다. 영상회의 중 발표자의 음성을 인식해 실시간 자막(한·영) 및 번역(13개 언어)을 할 수 있고, 회의 전체 내용의 자막 스크립트를 제공하며 회의록 작성 후 실행 방안까지도 출 가능하다. 메일과 메신저의 대화를 요약하고, 메일 초안까지 담당할 수 있다.

실제로 삼성SDS가 사내 임직원 1만

기업 오피스 초자동화부분 개선 ‘코파일럿’ 저렴하고 한국어 잘해 황성우 대표 “삼성 계열사 확산”

여명을 대상으로 실제 업무에 브리티 코파일럿을 활용한 결과 회의록 작성 시간은 75%, 메일 작성 시 내용 요약 및 초안 작성 시간은 66% 이상 절감됐다.

브리티 코파일럿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의 코파일럿 대비 가지는 차별점은 크게 보안, 한국어, 가격 경쟁력 등이다. 삼성SDS는 이용자들이 브리티 코파일럿을 해킹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한다. 또 정보에 대한 권한을 부서, 사람뿐만 아니라 일 처리 유형까지 고려해 미세하게 관리한다.

송해구 삼성SDS 솔루션사업부장(부사장)은 “브리티 코파일럿은 전세계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AI 비서”라며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은 획일적인 가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삼성SDS는 실제 사용자 수, 사용 토큰 수에 따라 바뀌는 유연한 모델을 갖고 있어 글로벌사 대비

75%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했다.

GPT 3.5 기반으로 구동되는 브리티 코파일럿은 다음 달엔 MS 워드, 10월에는 엑셀 및 파워포인트 등에서도 활용 가능하게 확장할 계획이다.

이날 동시에 출시된 패브릭스는 기업의 데이터와 지식 자산, 업무시스템 등을 생성형 AI와 연결하고, 임직원들이 손쉽게 공유하고 사용하게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이다.

삼성SDS는 기업들이 생성형 AI 도입을 앞두고 ‘기업의 특성에 맞는 거대 언어모델(LLM)은 없을지’, ‘생성형 AI 기술을 쉽게 적용할 순 없을지’,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비스 비용을 줄일 순 없을지’ 등 고민하는 것에 착안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패브릭스를 만들었다.

구형준 삼성SDS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장 부사장은 “패브릭스는 현재 1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차별화된 기업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으로 사업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 ‘AI 자회사’ 인수하는 카카오

## 카카오브레인과 통합 6월 마무리 부동산 공급 ‘스페이스’ 흡수합병

카카오가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술과 서비스 역량을 결집한다.

카카오는 2일 이사회를 열고 인공지능 연구·개발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초대 AI 기반 언어 모델과 이미지 생성 모델 등을 영업 양수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영업 양수도 및 조직 통합 절차는 6월 중 마무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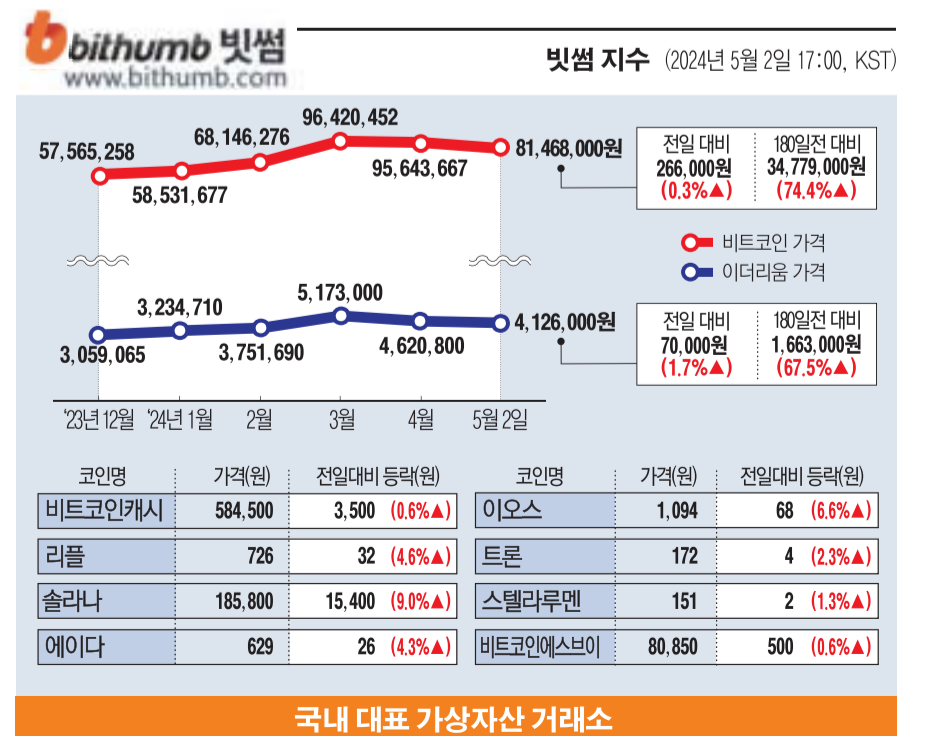
카카오는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 맞춰 AI 기술의 일상화·대중화를 추진해 갈 계획이다. 초대 AI 언어 모델 ‘코 GPT(Ko-GPT)’를 비롯해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모델 ‘칼로(Karlo)’, 다양한 경량화 언어 모델 등을 보유한 카카오브레인의 기술 역량과 카카오가 보유한 서비스 강점을 결합해 속도감 있게 AI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 목표다.

카카오에 합류할 카카오브레인 임직원은 일상 속 AI 서비스에 최적화된 경량화 언어 모델 개발과 그동안 연구·개발해 온 AI 모델의 고도화에도 계속 힘 쓸 예정이다. 정신아 대표는 “AI는 이제 기술 검증은 지나, 실질적 활용이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이용자 경험에 대한 카카오의 이해 및 해석 노하우와 언어 모델에 대한 카카오브레인의 역량

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일상에 스며드는 가장 가까운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는 오프라인 공간 사업 중심점 구축과 계열사 축소를 위해 이날 부동산 개발·공급업체 카카오스페이스를 흡수합병했다. 카카오스페이스는 CA협회체 지원조직장인 총괄대표 산하에 ‘스페이스팀’으로 편제돼 제주 프로젝트 등 업무를 주도하게 된다. 탐장은 임성욱 전 카카오스페이스 대표가 맡았다. 스페이스팀은 제주 프로젝트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오피스 부지 12만 7000㎡에 협업 업무공간 등을 마련하기로 하고 2022년 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과 착공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카카오스페이스는 작년 말 경기도 용인시 고기근린공원 일대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4층, 연면적 1만 8000㎡ 규모의 카카오연수원 ‘AI캠퍼스’를 구축하는 등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스페이스 흡수합병으로 경영 효율성 개선과 사업의 통합 운영에 따른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스페이스 합병으로 카카오 계열사 수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카카오 전체 계열사 수는 128개로 작년 5월 147개에 비해 19개 줄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 위기의 홈쇼핑업계... 멤버십 강화로 '록인' 전쟁

롯데, 연회비 3만원서 9900원 CJ, 등급 승급 기간 3개월 줄여 고객관리 효율화·생존전략 풀이

TV 시청자 감소와 송출수수료 인상 등 실적 악화 위기에 처한 홈쇼핑업계가 반등 전략 카드로 '멤버십 강화'를 꺼내 들었다.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해 충성고객을 더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이달부터 자체 유료 멤버십 서비스 '엘클럽(L.CLUB)'의 연회비를 기존 3만원에서 9900원으로 대폭 낮췄다. 2020년부터 VVIP 고객 1500명 대상으로 운영한 프리미엄 엘클럽(최상위 유료멤버십)과 헤리티지 엘클럽(55세 이상, 연회비 50만 원)은 작년 5월과 12월 각각 종료했다. 2030세대 대상 와이클럽 서비스도 지난 달 신규가입을 종료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와이클럽의 경우 4월 8일 이전 가입자들에게만 1년간 가입 혜택을 제공한다"며 "연령별 멤버십 제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엘클럽'으로 통합, 효율적

## 롯데홈쇼핑 고객 멤버십 개편안 전후 비교

개편 전		개편 후(2024년 5월 1일 ~)		
등급	조건	등급	조건	변경점
유료 멤버십 '엘클럽(L.CLUB)'	연 회비 3만원	명칭 기존과 동일(L.CLUB)	연 회비 9900원	연회비 인하 (3만원→9900원) 헬스케어 혜택 신설 15% 할인쿠폰 10매 제공 TV상품 무제한 5% 할인혜택 신설
다이아몬드	12회, 120만원 이상 구매 시	다이아몬드	6회, 60만원 이상	무료 멤버십 최고등급 달성조건 완화 TV상품 무제한 5% 할인혜택 신설
플래티넘	6회, 60만원 이상 구매 시			
골드	3회, 30만원 이상 구매 시	골드	2회, 20만원 이상	TV상품 할인쿠폰 수량 확대
실버	2회, 20만원 이상 구매 시	실버	신규 가입	가입 즉시 할인쿠폰, 엘포인트 적립 혜택
패밀리	1회 이상 구매 시			
일반	신규가입			

※ 출처: 롯데홈쇼핑

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의 멤버십은 구매횟수와 구매금액을 기반으로 책정되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6개 등급(일반~다이아몬드)을 3개 등급(△실버 △골드 △다이아몬드)으로 압축했다. 특히 눈에 띄는 개편 대목은 일반 고객의 혜택 범위를 넓히면서도 '핵심 고객군'인 중장년층이 필요로 하는 혜택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인 백신할인과 상급종합병원 예약 서비스, 병원 비대면 진료 등이 포함된 '헬스케어 서비스'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 유료 멤버십 서비스(엘클럽) 고객 3명 중 2명(70%)은 4050세대로, 이들의 재구매율은 일반 고객보다 4배 이상 높다. 롯데홈쇼핑은 주요 고객군인 4050세대 뿐 아니라 전 고객군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가입비 인하, 무제한

할인 등 엘클럽 혜택을 확대하고 통합 멤버십을 통해 차별화된 혜택을 선사, 장기적인 고객 충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앞서 CJ온스타일도 지난 달 모바일 중심 '원플랫폼 2.0' 전략의 일환으로 멤버십 개편을 단행했다. 멤버십 등급은 △VVIP △VIP △패밀리 △프렌즈 4단계로, 이전과 동일하나 승급 선정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등급 상승 문턱을 낮췄다.

혜택도 강화했다. 기존 VVIP와 VIP 등급에 제공하던 5% 즉시 할인 혜택을 전 등급에 제공하고 TV·모바일 라이브 방송 상품 구매 시 다른 혜택과 중복 사용 가능한 '방송상품 쿠폰'도 신설했다. 모든 멤버십 고객은 방송 상품 구매 시 즉시 할인 5%에 '방송상품 쿠폰'까지 더해 등급에 따라 7~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홈쇼핑사들의 멤버십 개편은 대형 유통사들의 공세 속 고객관리 효율화와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쇼핑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TV 시청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송출수수료 부담 확대 등으로 홈쇼핑업계의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요 홈쇼핑 4사(CJ온스타일, GS샵,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어들며 역성장상을 기록했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고객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신규 고객을 유입하고, 기존 고객들이 더 자주 찾게 만드는 것이 현재 업계의 과제"라며 "각사 상황에 맞는 멤버십 전략으로 각개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리미 기자 athena3507@



'30년 우정' 힐라·두산베어스 팬 사랑 보답 '특별 패키지' 선택 힐라는 프로야구 팀 두산베어스 후원 30년을 기념해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30주년 패키지'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힐라는 한국 프로 스포츠 역사상 최장 스폰서로서, 1995년부터 30년간 두산베어스 선수들과 함께 해왔다. 패키지는 유니폼, 모자, 우승 반지 레플리카 3종으로 구성했다. 유니폼은 2종으로 제작해 1차(5월 2일)엔 올드 유니폼을 선보이고, 2차(8월 1일)엔 클래식 유니폼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두산베어스의 KBO 한국시리즈 우승 반지 레플리카 3종도 제작, 패키지에 1개가 랜덤 포함된다. 600개 한정 수량이다. 사진제공 힐라

## "푸드코트 한바퀴 돌면 세계 미식여행 끝"

### 가보니 인스파이어리조트

영종도 위치한 초대형 푸드코트 홍콩·일본 등 곳곳 지역색 뚜렷

2일 인천시 중구 모히건 인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리조트(인스파이어리조트) 내 인스파이어몰에 초대형 푸드코트가 문을 열었다. 인천 영종도가 전 세계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허브인 점을 반영해 한식, 일식, 아시안요리, 서양식 등 다양한 메뉴를 푸드코트에 집합했다.

인스파이어리조트 메인로비에서 인스파이어몰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거대한 바위 두개가 보였다. 바위 사이에 나무다리길이 있다. 초대형 푸드코트 '오아시스 고메 빌리지 바이 글로우서울'(OASIS Gourmet Village by Glow Seoul, 오아시스)로 향하는 길이다. 오아시스는 인스파이어 몰 내 3500㎡(약 1076평) 면적에 총 1000석 규모다. 나무다리를 건너면 큰 나무가 매장 중간에 있고 그 사이 물줄기가 흘러나오며 고객



인천 중구 모히건 인스파이어리조트 내 초대형 푸드코트 '오아시스 고메 빌리지' 홍콩 거리.

을 맞는다. 큰나무의 정체는 '세계수'다. 오아시스는 세계 주요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 옆인 입지에 착안, 자연의 근원이 되는 거대한 나무를 뜻하는 세계수를 모티브로 삼았다. 방문객은 세계수에서 나오는 물줄기를 따라 동서남북 각 대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색 공간을 거닐며, 각각 다른 개성의 세계 미식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총 6개 외식 브랜드가 입점했다. 나베와 도시락 전문 '온천집'을 비롯해 △카이센돈 전문 '서울동' △퓨전 홍콩식 '창창' △술밥 한식 '우물집' △퓨전분식 '다다미분식' △수제버거 '스모킹번' △이탈리안 피자 '브루클린' 등이다. 이들 모두 국

내 공간 브랜딩 전문 기업 글로우서울이 운영하는 브랜드다.

동서남북 곳곳 거리는 지역색이 뚜렷하다. 북쪽은 화려한 홍콩의 밤거리 네온사인 간판이 들어서 창창을 돋보이게 한다. 남쪽 온천집의 경우, 일본온천에서 일식을 즐기는 느낌으로 설계됐다. 세계수 옆엔 4인용 평상이 가득한데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평일임에도 아이들과 방문한 가족들이 많아, 평상을 선호했다. 인스파이어리조트 관계자는 "세계수 옆에서 마치 소풍 온 듯 식사할 수 있어, 가족 고객이 평상 자리를 선호한다"면서 "여러 음식을 가져다, 한 테이블에서 즐기는 푸드코트의 장점을 살렸다"고 했다. 다만, 각 식당의 가격과 키오스크 편의성은 아쉬웠다. 대부분 메뉴는 1만 원 중후반대였다. 각 매장 앞 키오스크 주문도 특정 매장으로 한정돼 불편하다. 동쪽 식당에서 주문한 뒤 다른 메뉴를 주문하려면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야 한다. 여러 메뉴를 다 맛보려면, 동서남북 푸드코트 전체를 다 돌아다녀야 한다.

영종도=글·사진 유승호 기자 peter@

## 필리핀 심장 사로잡은 파리바게뜨

마닐라에 위치한 1호점서 빵 매일 3000개 넘게 팔려

SPC그룹은 필리핀에 낸 1호점 '파리바게뜨 몰 오브 아시아점'이 지난 달 18일 마닐라 오픈 이래 4월 말까지 일 평균 1200여 명이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매장에선 빵과 케이크 등이 매일 3000개 넘게 팔리고 있다. SPC그룹은 올해 하반기 필리핀에 2개 점포를 추가로 여는 등 현지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다른 동남아 진출 국가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시장에서도 '고급화'와

'현지화' 전략을 펼치며 현지인들의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현지 시장을 잘 아는 유력 기업인 '버자야 푸드(BERJAYA Food Berhad)'와 파트너십을 통해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한 파리바게뜨는 현지화에 특히 공을 들였다. 필리핀 국민빵으로 불리는 '엔사이마다(Ensaymada: 버터 크림, 설탕과 치즈를 빵 위에 듬뿍 얹은 디저트)'를 파리바게뜨의 노하우로 재해석한 '순수우유 크림 엔사이마다'를 개발해 연일 완판 행진 중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롤케이크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스테디셀러 '실키롤케익'도 선물용으로 현지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김지영 기자 kij42@

## 100주년 삼양, 새 모델에 장기하... 고객 일상 찾아간다

2030 젊은층 겨냥 디지털 광고 '친숙함 느끼게 만드는 것이 목표'

창립 100주년을 맞은 삼양그룹은 5월부터 디지털 장기하를 모델로 새로운 기업광고 캠페인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광고의 핵심 메시지는 '그 느낌 어쩌면 삼양 때문이지도'다. 1924년 창립 이후 100년간 식품, 화학, 의약바이오, 패키징 등 삼양이 만든 다양한 기술과 제품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콘셉트다. 새 광고는 '일상



창립 100주년 삼양그룹이 5월부터 선보이는 디지털 장기하를 모델로 한 새 기업광고 캠페인. 사진제공 삼양그룹

편'과 '헌팅편'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됐다. 각각 직장인의 하루와 헌팅포차를

배경으로,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여러 상황을 보여주고 그 이유가 어쩌면 삼양의 기술과 제품이 함께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장기하 특유의 창법을 활용해 리듬감 있고 맛맛을 살린 내레이션과 '그 느낌 어쩌면 삼양 때문이지도'라는 메시지가 잘 어우러져 전달력을 높였다. 20~30대 젊은 층을 겨냥한 디지털 광고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티빙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김지영 기자 kij42@

# ‘마구잡이’로 내준 PF대출 4년간 43兆 ↑... 연체율 4배 꺾충

## ‘부메랑’ 된 부동산PF

저금리 기조 속 부동산 경기 호황에 ‘마구잡이’로 늘려왔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금융권에 ‘시한폭탄’으로 돌아왔다. 2020년말 92조 원 규모였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4년 만에 135조 원으로 40조 원 넘게 늘었으며, 관련 연체율은 4배 넘게 급등했다. 특히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가파른 연체율은 위태로울 지경이다. 은행과 보험은 건전성 관리에 만반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출 규모가 워낙 큰 데다 금융당국의 추가 지원 압박을 받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체율 급등한 증권·저축은행 ‘요주의’= 2일 본지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5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92조5000억 원 보다 무려 43조1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1년 112조9000억 원, 2022년 130조3000억 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4년 간 크게

PF 연체율 4년새 0.55%→2.70%

증권·저축은행·캐피털사 급등 영향  
‘대출잔액 88兆’ 은행·보험도 불안

금융당국, 신규 자금 유도 움직임  
금융사·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도  
금융권 PF대출 더 늘어날 가능성

악화됐다. 2020년 0.55%였던 연체율은 이듬해 0.37%까지 떨어졌으나, 2022년 1.19%로 급등하던 지난해말 2.70%까지 치솟았다. 4년간 4배 이상 오른 것으로 증권사와 저축은행, 캐피털이 주도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증권이 13.7%로 4년 전(3.4%) 보다 10.3%포인트(p) 뛰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다만 증권사의 지난해 PF 대출 연체율은 2분기 17.28% 고점에서 3분기 13.85%, 4분기 13.73%로 내려가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체 대출 잔액이 증가하면서 보인 일시적인 착시효과에 불과했다. 증권업의 부동산 PF 잔액은 2020년 5조2000억 원에서 2023년 7조

##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12월 말 기준)

은행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출잔액(조원)	연체잔액(조원)	연체율(%)		대출잔액(조원)	연체잔액(조원)	연체율(%)		대출잔액(조원)	연체잔액(조원)	연체율(%)		대출잔액(조원)	연체잔액(조원)	연체율(%)	
은행	26.1	0.1	0.28		32.5	0.01	0.02		39.5	0.01	0.01		46.1	0.2	0.35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6.9	0.2	2.34		9.5	0.1	1.22		10.5	0.2	2.05		9.6	0.7	6.96	
증권사	5.2	0.2	3.4		4.6	0.2	3.7		4.5	0.5	10.4		7.8	1.1	13.7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13.4	13.4	18.3		18.3	0.1	0.39		24.7	0.6	2.39		24	1.1	4.76	
보험사	36.4	0.04	0.11		42	0.03	0.07		44.3	0.3	0.6		4.2	1.02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6.9	0.2	2.34		9.5	0.1	1.22		10.5	0.2	2.05		9.6	0.7	6.96	

8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연체 잔액도 지난해 말 1조1000억 원까지 쌓였다. 2020년 2000억 원보다 무려 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6.96%에 달했다. 2002년 2.34%에서 4.62%p 오른 수치다. 캐피털의 PF 대출 연체율은 4.76%를 기록했다. 전년(0.29%)보다 20배 이상 올라 상승률로는 금융업종에서 가장 높다.

◇‘건전성은 관찰지만’ 대출잔액만 88조...은행·보험도 ‘불안’= 은행과 보험 등은 상대적으로 건전성 측면에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워낙 큰 탓에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은행 역시 4년 간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꾸준히 늘여왔다. 2020년 26조1000억 원 규모였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6조1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대출 잔액이 워낙 많다보니 안정적으로 관리 됐던 연체율도 2020년 0.28%에서 지난해 0.35%로 악화됐다.

보험업종 상황도 비슷하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2020년 36조4000억 원에서 2021년 42조 원, 2022년 44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지만 연체율은 되레 올랐다. 2020년 0.11%였던 연체율은 2021년 0.07%로 떨어졌다가 2022년 0.6%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1.02%로 상승했다.

문제는 이들 금융사들의 부동산 PF 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대출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을 중심으로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방식을 활용,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참여 시 투입하는 신규자금을 건전성 분류에서 ‘정상 여신’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자한도를 한시적 늘려주고,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각종 인센티브 제안에도 은행과 보험업계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어려울 때 마다 은행에 손을 벌리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를 준다 해도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무조건을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건설사, 치솟는 이자 부담에 ‘전전공공’... 연쇄부실 우려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시 금융권에서 건설사에 요구하는 대출금리와 수수료가 높아지면서 사업장 정상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계의 불만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련해서 실태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PF 사업장에 대한 육색 가리기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저축은행·여전업·증권

PF금리 年 6.63%... 0.68%p 올라  
저축은행 8.24%, 캐피털·증권 7%대  
금융당국, 7개사 대상 실태조사 착수

·상호금융 등 5개 업권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PF 대출금리는 평균 연 6.63%로 전년 동기 대비(연 5.95%) 대비 0.68%포인트(p)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이 고점을 찍은 2020년 말(4.52%)과 비교하면 2.11%p 올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이 연 8.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캐피털 연 7.4% △증권 연 7.2% △카드 연 6.5% △상호금융 연 5.31% △보험 연 5.14% 순이었다. 특히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는 전년 대비 각각 1.3%p, 1.27%p 올랐다.

대출 금리 상승의 원인은 금융권이 부동산 PF 사업장의 불확실성으로 기존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높아진 대출금리로 건설업계는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각종 수

수로 등을 포함하면 실제 금리가 연 20%를 넘는 사례도 상당수다.

같은이 커져자 금융당국은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증권·여전업 등 3개 금융권 7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대출금리 및 수수료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금융사가 PF 사업장 위기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 및 금리를 챙겨 정상 사업장까지 위축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3월 초 메리츠증권·캐피털,

## 부동산 PF 대출 금리(단위: %)

	2020년말	2021년말	2022년말	2023년말
보험사	3.24	3.5	4.47	5.14
카드사	4.0	4.4	6.0	6.5
캐피털사	4.9	4.9	6.1	7.4
증권사	4.8	6.1	7.1	7.2
저축은행	6.6	5.87	6.97	8.24
상호금융	3.58	3.75	5.03	5.31

\* 저축은행: 7개사 \* 출처: 윤창현 의원실, 금융감독원

다음투자증권 등 검사를 실시하고 대출 만기 연장 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높은 자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다. 정성원 기자 jsw@



**“엄마와 딸이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 3% 할인”**

홍국화재 ‘여성MZ보험’ 출시

홍국화재는 ‘무배당 흥국(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여성MZ보험)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여성특화보험으로 기획된 이상품은 ‘모녀가입 할인’을 제공한다. 5세 이상 딸을 둔 50세 이하 엄마라면 누구나 월 보험료의 2%를 할인받을 수 있다. 딸 아이도 같이 가입한다면 아이의 보험료는 3% 할인된다. 딸이

두 명인 경우 각각 3%씩 할인을 받는다. ‘여성특화’에 방점을 둔 상품인 만큼 유방암, 갑상샘암 등 여성 관련 암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특히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갑상샘암 수술’을 추가했다. 피보험자가 갑상샘암 수술을 받게 되면 앞으로 납아있는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재은 기자 dove@

## 신한금융, 슈퍼SOL 고객에 보이스포싱보험 무상 제공

### 최대 2000만원 피해 보상

신한금융그룹은 6월부터 보이스포싱 피해금 및 착오송금 회수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보상하는 ‘신한슈퍼솔(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신한금융은 매 분기마다 신한 슈퍼

SOL 이용 고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스탬프 쿠폰’에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신한슈퍼SOL 금융안심보험은 거래등급별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 단위로 보이스포싱 피해금 및 착오송금 회수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보상한다. 거래가

없더라도 신한 슈퍼SOL 가입 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또 고객들은 선택한 금융케어 쿠폰을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해 지인에게 전달할 수 있어 본인 뿐만 아니라 고통층 부모, 자녀 등 보이스포싱 및 착오송금이 우려되는 지인들도 피해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 롯데카드, 베트남 공략 가속... 현지법인에 937억 증자

### “안정적 성장여력 확보, 본격 성장”

롯데카드가 베트남 시장에서의 사업확정을 본격화한다. 롯데카드는 베트남 법인 ‘롯데파이낸스베트남’에 6800만 달러(약 937억 원) 규모의 증자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3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를 승인하고 이날 증자 대금 입금을 완료했다. 베트남 사업을 시작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번 증자는 롯데카드의 축적된 현지 경험과 차별화 역량을 바탕으로, 베트남 사업이 지속 성장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했다는 자체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번 투자금은 사업구조 개편 기반 마련, 영업자산 확대에 따른 운영자금 등 안정적 성장 여력을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롯데카드는 2018년 베트남 현지 소비

자금융 회사인 ‘테크콤파이낸스’를 인수하며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베트남 소비자금융 시장 진출을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성과에 대한 자신감의 결과”라며, “롯데파이낸스베트남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체력을 갖추게 됐고, 안정된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베트남 내에서 존재감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원 기자 jsw@



# 강달러 시대 '환테크' 열풍... RP·ETF·펀드에 뭉치던

이자에 환차익 '두토끼 잡기'  
달러ETF 3개월 수익률 8%대  
신한달러펀드 올 2000억 증가  
달러 하락 땀 환손실... 요주의  
증권사 RP 특판상품 잇단 출시

KODEX 미국달러선물 레버리지	
KOSEF 미국달러선물 레버리지	3개월 수익률 8% 중반대
TIGER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	4월 한달간 275억원 유입
KODEX미국달러선물인버스2X	개인 38억원 순매수
신한달러단기자금펀드	순자산 올해 들어 2000억원 증가

직장인 신승희(43)씨는 올해 초 국내 주식 일부를 매도한 자금 2000만 원가량을 환전해 증권사에서 달러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했다. 이자에다 달러강세 전망에 따른 환차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노린 것이다. 달러 RP는 증권사가 보유한 달러 표시 채권을 투자자에게 판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약정가격으로 증권사가 다시 사들이는 것으로 은행의 달러 예금보다 이자가 높다.

신 씨는 "올해 하반기까지 달러값이 오를다는 전망도 있고, 향후 주식시장 변동

성이 커질 것 같아서 안전자산인 달러 매입을 늘려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달러강세가 이어지며 '달러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DEX 미국달러선물 레버리지'와 'KOSEF 미국달러선물 레버리지', 'TIGER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 등의 지난달 수익률은 5.2~5.6% 수준이다. 3개월 수익률은 8% 중반대다.

달러 하락에 배팅하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4월 한달간 개인투자자는 달러 선

물지수를 역으로 2배 추종하는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2X ETF'를 275억 원어치 사들였다. 달러 선물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KODEX 미국달러선물인버스'에도 38억 원의 개인 순매수가 유입됐다. 달러 가치가 고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달러 약세에 배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300원 후반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은 이날 전장보다 6.1원 하락한 1375.90원에 마감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당초 예상보다 비둘기파적 입장을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달러 펀드에도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신한자산운용의 신한달러단기자금펀드(USD) 순자산은 올해 들어 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7월 외화머니마켓펀드(MMR) 도입 후 달러로 투자할 수단으로 예금과 RP에 이어 단기자금 펀드까지 선택지가 늘어난 양상이다.

달러 RP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증권사들은 특판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6월까지 미국 달러화 약정형 RP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최고 연 5.05% (세전) 특판금리를 제공한다.

RP는 증권사가 일정기간이 지난 뒤 금리를 더해 되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이다. 하루 이상만 예치해도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발생 환차익은 비교세다. 달러 RP 금리는 증권사마다 다르다. △미래에셋증권(연 4.2%) △한국투자증

권(연 4.65%) △유진투자증권(4.2%) 등이다. 기간별로도 수익률에 차이가 난다. 최대 365일 자금을 투자하기로 계약하는 약정형의 경우 신한투자증권이 연 4.75~5.20%로 가장 높다. RP는 별도 운용 수수료가 없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달러 가치 하락 시 환손실 가능성이 있다.

달러 예금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국내 거주자 달러 예금은 775억9000만 달러에 달한다. 전달보다 2억8000만 달러 감소했지만, 달러강세에 배팅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가.

증권가는 달러 강세 국면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민간 소비 전망 악화 등 펀더멘털 악화 속 해외투자자 인턴 달러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틀에서 원화 약세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 지루한 박스피 장세에... 단기자금 ETF 30조 돌파

설정액 33조... 올해 17% 증가  
CD금리·초단기 채권형 매수세

만기가 짧은 단기채나 초단기 금리의 움직임 추종하는 단기자금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2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단기자금 ETF 설정액은 33조14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초(28조2839억 원)보다 17.19% 늘어난 규모다. 4월 한달 동안만 해도 1조70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최근 자금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ETF와 초단기 채권형 ETF다. 실제 최근 한 달간 설정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상품도 △KODEX CD금리액티브 ETF(5531억 원) △TIGER CD금리투자 KIS ETF(3743억 원) △하나IQ 머니마켓액티브 ETF(1700억 원) 등 순이다.

수익률 면에서는 미국 단기 채권 ETF인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ETF'가 단기자금 ETF 중 연초(8.64%), 6개월(4.10%), 3개월(4.67%), 1개월(2.71%)에서 모두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다만 금리 변동으로

단기채에서 본 성과보다 지속되는 강달러 기조로 얻은 환차익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자금 ETF에 자금이 쏠린 이유는 국내 증시가 박스피에 머물며 반도체주나 이차전지주 등 기존 주도주가 사라진 영향이 크다. 새로운 주도주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놓고 있는 목돈을 이 ETF에 투자하는 셈이다.

유아란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CD금리 액티브 ETF에 대해 "주식을 팔고 은행 예금이나 파킹통장으로 갈아타려면 주식 매도 대금이 입금될 때까지 2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파킹형 ETF로 갈아타면 주식을 매도한 후 바로 매입할 수 있어 2일 치 이자를 더 받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단기채 ETF의 경우는 장기채보다 비교적 금리 민감도가 낮아 금리 변동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낸다는 장점도 있다.

단기자금 ETF의 인기에 상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KB자산운용은 'KBSTAR KOFR금리액티브(합성) ETF'를 출시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 "TDF 수익률 중요하지만 변동성 고려해야"

신익거리, TDF 3·골  
손수진 미래에셋운용 상무

"투자할 타깃데이트펀드(TDF)를 고를 때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 기간 내가 얼마의 위험을 감수했는지 나타내는 '변동성'도 고려해야 한다. 상품별로 변동성 대비 수익률 성과를 비교해 투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손수진(사진)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관리(WM)연금마케팅부문 상무는 최근 서울 종로구 미래에셋자산운용 본사에서 본지와 만나 이렇게 밝혔다. TDF는 장기 투자 상품인 만큼, 변동성 지표인 '샤프지수(투자위험 대비 초과수익률)'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다.

손 상무는 TDF는 펀드 수익률과 펀드 투자자 수익률 간의 괴리를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펀드 성과와 그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성과는 다르다"며 "둘 간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실질적으로 투자자 상실감이 생길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손 상무가 꼽은 미래에셋자산운



'샤프지수'·괴리를 살펴봐야  
연금 선진국 지속적인 스테디  
TDF시장 2030년 50조 전망

용은 TDF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손 상무는 "퇴직연금 시장의 펀드 시장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점유율이 27%로, 2~3위 점유율을 합친 수준보다 높다"며 "TDF도 결국 퇴직연금 시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금 상품 및 연금 선진국에 대한 지속적인 스테디와 은퇴연구소 등 별도 조직 구성 등이 TDF 성과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고 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DF 운용 전략으로는 '자체 운용'도 손꼽혔다. TDF를 운용 중인 국내 자산운용사 중에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자문을 받거나 위탁운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손 상무는 "국내 직장인은 보통 1차 직장에서 50대에 은퇴하고, 2차 직장에서는 급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뒤,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기) 등 변수가 많다"며 "글라이드패스가 이런 요인을 감안해 대비하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데 해외 위탁을 하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손 상무는 국내 TDF 시장 규모가 2030년 약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4년 전에 비하면 TDF 시장의 성장률 자체는 둔화했지만, 퇴직연금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TDF 외에도 ETF로 자금 유입이 이뤄지며 자연스럽게 시장이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 앞으로도 TDF가 시장에서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며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박민규 기자 pmk8989@

## 미래에셋운용 자회사 '글로벌엑스 캐나다' 출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캐나다 상장지수펀드(ETF) 자회사 '글로벌엑스 캐나다(Global X Canada)'가 사명을 변경해 새롭게 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1일(현지시간)부터 '호라이즌즈(Horizons)' 브랜드를 사용하던 ETF 종목명은 모두 '글로벌엑스(Global X)'로 변경됐다. 종목명 외 티커, 운용 전략 등은 유지된다. 글로벌엑스 캐나다는 출범과 함께 신규 ETF 17종을 5월 중 캐나다 거래소에 신규 상장할 예정이다.

히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캐나다 ETF 시장에서 20년간 혁신적이고 차

별화된 상품을 선보이며 캐나다를 대표하는 ETF 운용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 전 세계 미래에셋그룹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엑스 ETF 플랫폼을 기반으로 더욱 향상된 투자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미래에셋운용 사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글로벌엑스 캐나다가 현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경험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에셋은 전 세계 ETF 투자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이순호(오른쪽) 한국예탁결제원 사장과 김문정 성애원 대표가 최근 부산 금정구 성애원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 예탁원, 부산 아동시설 후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최근 부산지역 아동양육시설 성애원과 애아원 2곳에 각각 500만 원씩 후원금 총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순호 KSD나눔재단 이사장은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KSD나눔재단은 2009년 설립 이후 취약계층 학생들 대상 꿈이룸 장학생 선발, 특성화고 학생들 대상 금융경제교육과 성과연계 꿈성장 장학생 선발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실시 중이다.

정희원 기자 hihello@

# 오피스빌딩 매매 6분기 만에 최고...딜클로징도 잇따라

1분기 전국서 총 3468건 거래  
금액 기준 작년 동기보다 58% ↑

서울 테헤란로 아크플레이스 등  
A급 프라임 빌딩도 속속 매각

금리변동성 줄며 가격협상 용이  
낮은 공실률·임대로 상승도 영향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주요 오피스를 중심으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는 모습이 다. 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최근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매도·매수 간 가격 높낮이 차이로 좀처럼 매듭지지 못했던 거래들도 최근 들어 거래가 종결(딜 클로징)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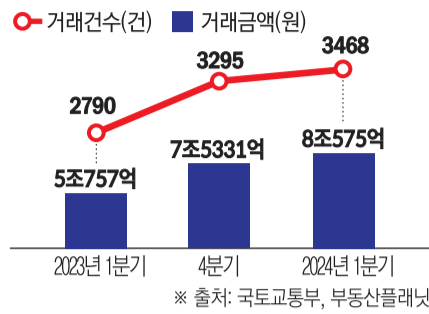
한 결과 1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는 총 346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3295건과 비교해 5.3% 상승한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은 24.3% 증가하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6개 분기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거래 금액도 늘었다. 1분기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금액은 8조575억 원으로 직전 분기(7조5331억 원) 대비 약 7%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58.7%나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A급 프라임 오피스 빌딩의 매각 소식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거래가 지지부진했던 매물들이 해가 바뀌며 주인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글로벌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최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A급 프라임 오피스빌딩 아크플레이스를 7917억 원에 매각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지난해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10월 KB자산운용이 매입한 잠실 삼성 SDS타워(8500억 원) 이후 가장 비싼 가격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 위치한 또 다른 A급 오피스 빌딩 '아이콘 역삼'도 최근 캡스톤자산운용을 새 주인으로 맞았다. 매각 금액은 21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아이콘 역삼은 연면적 1만9579㎡,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다. 2022년 매각이 기대됐으나, 매도 측이 3.3㎡당

4000만 원을 제시하자 원매자들이 가격이 높으며 인수를 포기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거래를 매듭지지 못했던 곳이었다.

이지스자산운용도 올해 '광화문 G타워'를 신한리츠운용에 매각했다. 2890억 원에 매각된 이 건물은 신라스테이가 포함된 연면적 3만4747.2㎡ 규모로, 지상 2~7층까지 오피스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퍼시픽자산운용은 코람코자산신탁에 약 3100억 원을 주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케이스퀘어시티' 빌딩을 인수했다.

이같은 움직임의 배경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금리변동성이 줄어들자 가격협상이 용이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화 알스퀘어 팀장은 "금리 상승기인 2022년~2023년은 원매자와 매도인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매각을 철회하거나, 펀드만 기연장 사례가 많았다"며 "그런데 최근 매도·매수인 간 '가격 높낮이'가 맞춰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공실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임대료는 오르면서 상업·업무용 빌딩이 안전 자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영향도 크다. 알스퀘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2.4%였다. 전분기 대비 0.6%포인트(p) 증가했지만 통상 업계에서 보는 자연공실률(5%)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평균 명목임대료는 3.3㎡당 9만5000원으로 전분기보다 3.4% 올랐다. NOC(전용면적당 임대료)는 3.3㎡당 25만4000원으로 전분기보다 2.8% 상승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 전반의 회복을 선언하기는 이르다는 진단도 적지 않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 여부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당분간은 시장을 주시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je@

## 공공주택 수익률 24%p 차?...LH·SH '갑론을박'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 차이가 난다고 발표하자 LH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상세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 비교는 계산 오류가 있는 결과라는 것이다.

LH는 2일 "SH공사가 주장하는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 차이는 분양시점 상의 차이나, 부동산 입지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를 '계산 오류'라고 짚었다.

SH는 이날 자료를 내고 LH와 비슷한 위치나 비슷한 시기 분양한 공공주택 단지 간 수익률이 24%포인트(p) 차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SH, 수서·성남고등 등 LH 단지와 비교 "분양원가 공개" 주장에  
LH "분양시기·입지 차이...전국 단위 사업, 지방공기업과 달라"

분양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LH도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오해 해소에 나서고 있다.

LH는 SH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단지들 간 분양시기 차이도 크다고 설명했다. SH가 말한, 위치가 유사하나 수익률 차이가 크다고 주장한 곳은 수서역세권 A3블록(LH) 및 세곡지구 2·3·4단지(SH), 내곡지구(SH)와 성남고등지구(LH)다.

LH는 수서역세권 A3블록(LH) 및 세

곡지구 2·3·4단지(SH) 비교에 대해 "LH는 2019년 12월, SH는 2013년에 분양해 분양시기 차이가 커 단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곡지구(SH) 역시 2013년 공급이 이뤄진 반면, 성남고등지구(LH)는 2019년이었다.

이어 SH가 분양시기가 비슷하나 수익률 차이가 크다고 주장한 △과천지식정보타운 S3, S7단지(LH) △고덕강일 8단지(SH)에 대해서도 "생활권이 다른 입지상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해명했다.

LH는 "지방공기업(SH 등)과 달리 LH는 전국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공기업으로, 분양수익은 지역균형개발, 임대주택 건설·운영, 주거복지 등 비수익 사업을 위한 교차보전에 쓰이고 있다"며 "LH와 같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익은 기업을 위한 이익이 아닌 정부의 전국단위 주택공급정책 이행을 위해 순환 활용되는 재원"이라고 밝혔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원가항목별 금액)' 공시 중"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은 기자 hje@

전국 3만6000가구 공급  
수도권만 1만8000가구

## 5월, 분양 풍년

올해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이번 달 중 분양될 예정이다.

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달에는 전국에서 3만623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올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1만4363가구)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수도권 분양예정 물량은 총 1만8786가구로, 올해 4월(3576가구) 대비 5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지난해 5월(9068가구) 대비로는 2배가량 많다.

전년 동기 대비 지역별 물량 변화를 비교하면 △서울 424가구 → 2335가구 △경기 8547가구 → 1만5742가구 △인천 977가구 → 709가구 등 모든 지역에서 물량이 늘어났다. 특히 경기도 물량이 수도권 물량의 84%, 전국 물량의 43% 비중을 차지해 경기도 지역에 대한 물량 쏠림이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분양예정 단지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 힐스테이트(1101가구)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1509가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더리체(2512가구) 등이다.

지방에서는 총 1만744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전년 동기(5295가구) 대비 3배 이상 많다.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특정 지역에 쏠리기보다는 골고루 분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3713가구)을 필두로 강원(2626가구), 부산(2560가구), 울산(2514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하지은 기자 hje@

## 서울시 고도지구 제도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

도시계획위, 남산 등 제한 완화  
의사당 주변은 국회와 추가 협의  
"노후 주택 개선 정비사업 속도"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올해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3월 재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1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따른 내용을 세밀하게 조정 후 이번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남산 주변 부담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이 어려운 일부 문구에 대해선 명확히 하는 수

정교정을 거쳤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최초로 지정된 고도지구의 재정비안 마련을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 정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5월 중으로 실시하고 올해 6월 내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 호반그룹, 혁신기술공모전... "스타트업 적극 지원"

이달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호반그룹은 '2024 호반 혁신기술공모전(2024 HIT CHALLENGE)'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호반 혁신기술공모전은 건설, 제조, 유통 등 호반그룹의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해마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

굴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모집분야는 크게 네 가지 부문으로 △스마트시티(건설로봇, 건설자재 등) △레저/숙박/유통(스마트골프장, 자원순환 등) △제조(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 △신사업(Ag-Tech, 기타 등) 등이다.

참가 희망 기업들은 이달 30일까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와 서울경제진흥원 '스타트업플러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서류 평가, 현장 실사, 발표 평가 등을 통해 총 8개사를 수상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 기업들에게는 총 3억 원 규모의 상

금과 사업화 지원금이 지급된다. 호반그룹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PoC 및 테스트베드 지원, 투자 및 티스(TIPS) 프로그램 연계, 판로개척 및 네트워킹 지원 등을 제공한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혁신기술공모전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이어왔는데 올해로 벌써 5회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호반은 오픈이노베이션 선두주자로 혁신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사진제공 호반그룹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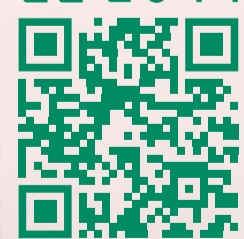


#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http://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오세훈 시장, UAE 출장... 중동에 '서울 매력' 알린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서울 세일즈'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출장길에 오른다. 오 시장은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해 서울의 매력을 알리고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서울의 첨단산업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해 '두바이 핀테크 서밋' 기조연설, '서울마이소울 인 두바이' 서울 관광 해외 프로모션, 두바이 미래재단 업무협약(MOU)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출장에서 오 시장은 UAE 도시들의 국제행사에 참석해 서울과 UAE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 투자유치와 관광을 홍보하는 한편 더 나은 서울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 5박7일 일정으로 '서울 세일즈' '두바이 핀테크 서밋'서 기조연설 아부다비 투자회의선 정책 발표 첨단산업, 중동 진출 발판 마련

오 시장은 '두바이 핀테크 서밋'을 비롯해 △인베스트서울-두바이 상공회의소 MOU △서울관광 해외 프로모션 개최 △두바이 미래재단 협력 MOU △'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 미래도시 분야 기조연설 △야스 아일랜드 및 마스다르 시티 현장 시찰 등 주요 일정을 통해 매력도시 서울 본격 실현을 위한 구상에 나선다.

오 시장은 6일(현지시간) 두바이 주메이라 리조트에서 열리는 UAE의 대표 박람회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혁신허브-서울'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할 계획이다. 또 인베스트서울과 두바이상공회의소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협조 △두바이상공회의소의 서울사무소 개소 등 중동-서울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두바이 디아젠에서 6-7일 양일간 개최되는 서울관광 프로모션 '서울 마이소울 인 두바이'에 참석한다. 오 시장은 서울의 관광 명소·음식 등을 소개하고, 직접 경품 추첨도 진행하며 매력도시 서울을 알릴 계획이다.

오 시장은 7일 두바이 도로교통청을 찾아 미래 모빌리티 중심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MOU를 체결한다. 양 도시는 업무협약을 통해 △자율주행·UAM 실증 사업 정책교류 △시민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올해 10월 예정된 서울형 CES '스마트라이프

워크(SLW)'에 두바이의 혁신적인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두바이 미래재단과의 업무협약도 예정됐다. 두바이 미래재단은 세이크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 막툼 두바이 통치자가 설립한 기관으로 두바이의 미래 핵심 프로젝트를 계획 및 실행하고 있다. MOU 체결로 양 도시는 서울 스타트업과 두바이 스타트업의 상호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 시장은 아부다비 첫 일정으로 8일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리는 '연례투자회의' 미래도시 분야에 참석해 '더 나은 미래도시를 위한 서울시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약

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은 미래 교통 정책 등을 발표한다.

오 시장은 9일 아부다비 '야스 아일랜드'를 방문해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시찰하고, 서울의 상암 일대 문화복합시설 조성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본다. 또 아부다비가 경제 다변화와 문화·관광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디아트 문화지구'를 방문해 문화지구로 지역의 이미지를 재창출한 사례를 시찰한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10일 탄소중립스마트시티이자 주거·산업·교육·오락 등 다기능 복합 도시인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해 '직·주·락이 어우러지는 공간'의 서울시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재빈 기자 chaebi@



## 세종지법 생기나... 대법, 신설 로드맵 마련

### 지역별 법원 신설 연구용역 착수 해외사례 토대로 평가요소 반영 조희대 "시급한 지역부터 검토"

대법원이 지역별 법원 신설 등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급한 지역부터 (법원 설치)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조에 맞춰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합리적인 법원 신설 및 통합 기준 등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설치의 입법사항으로 국회가 나서야 하지만, 운영주체인 사법부의 입장이 중시된다"며 "자체적으로 법원 설치 등 기준을 설정하고, 주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주된 연구내용으로는 △법원(고등법

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신설·승격·통합 시 고려해야 할 합리적인 원칙 설정 △이상적인 대한민국 법원 분포 설정 △법원 신설·승격 계량화한 마련 등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행정구역, 인구 및 사건 수, 사법 접근성, 관할 면적 등을 평가 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설정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현재 설치된 법원과 비교를 통해 신설·승격·통합이 필요한 지역을 예측하고, 지역 간 형평성이나 설치 편의성(예산 확보 용이성) 등 평가 항목을 계량화할 예정이다.

애초 지역 법원 설치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인천고등법원, 경북지방법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을 담은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6일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법원 신설 문제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 1000만 이 안 되는 서울은 5개 지방법원 있는데, 인구 1300만이 넘는 경기도는 수원과 의정부 지방법원만 있다"며 "경북, 전남, 충남, 세종 등 광역단체 4곳에는 지방법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저도 예전부터 그런 생각(법원 신설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인구수를 고려할 때 (법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헌재판소가 위헌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임명된다면 시급한 지역부터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경상북도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시에 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조 후보자는 "국회나 정부에서 도와준다면 저희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spes@



'내친구서울' 어린이 기자단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걱정아 사라져라, 압해치의 마법마을' 마법놀이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광장서 해치와 추억 만드어요"

### 시 '해치의 마법마을' 팝업 오픈 이색 시청투어 등 체험행사 다채

가정의달을 맞아 서울시의 상징 캐릭터 '해치&소울프렌즈'가 서울광장 내 '해치의 마법마을' 팝업스토어를 통해 시민들을 찾아온다. 해치와 소울프렌즈가 탄생한 곳을 둘러보는 이색 시청투어 '해치의 마법탐험대'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도 선사한다.

2일 서울시는 이날 6일까지 서울광장 잔디광장에서 '해치의 마법마을'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행사 중 부스가 아닌 행사 전체를 단독 팝업으로 꾸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팝업스토어의 하이라이트는 3-4일 양일간 시민들이 직접 탐험대

원이 돼 해치&소울프렌즈가 탄생한 곳을 둘러보는 이색 시청투어 '해치의 마법탐험대'다. '마법용품점'과 '마법실험실' 콘셉트로 꾸민 브랜드총괄관실과 서울브랜드담당관 사무실, '대마법사의방'으로 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이 시청 투어코스로는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날 서울광장 내 '해치의 마법마을' 팝업스토어에 모인 아이들은 해치 모자를 쓰고 소울프렌즈 풍선을 들며 기대감에 들뜬 모습이었다. 아이들은 해치의 마법마을에 들어서 마법 해치 갤러리, 소망 메시지 월, 마법방울 놀이터 등을 돌아왔다.

어린이날 연휴기간인 4-6일에는 어린이대공원·서울대공원에서 해치를 만날 수 있다. 김재빈 기자 chaebi@

##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박경훈 소환

###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어 두번째 '혐의자 축소' 뒷선 압력 등 조사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재검토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특정 인물을 빼라고 지시했다', '피혐의자 수는 왜 줄었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2일 채상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의 조사 결과가 경찰에 넘어갔다가 회수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는데 관련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공수처는 혐의자를 축소하는 과정에 이 장관을 비롯한 뒷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일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첫 핵심 피의자로 소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관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었다. 유관관은 첫 소환 사흘 후인 지난달 29일 두 번째 조사를 마쳤다. 두 차례에 걸쳐 유관관은 26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유관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유관관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가 끝난 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시점에서 (유관관에 대한) 구속영장 정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공수처는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채상병 사건을 이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사령관도 이번 이번 주말 소환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관계자들과 다 접촉하고 있고 일정 조율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뒷선에 대한 공수처 조사도 차례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이현 기자 cahyun@

<국내 힙합 1등>

# “즐거우세요?”... ‘국힙원탑’ 밈 등극한 민희진 기자회견



## 하이브 내분사태 후폭풍

국내 최대 음악 기획사 하이브의 내분 사태 후폭풍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한국 음악 시장 K팝의 거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사적인 대화가 대중들에게 공개됐다. 풍류와 해학의 민족은 이를 지나치지 않았고, 그 대화는 각종 광고와 사회관계망 시스템(SNS) 밈(Meme·인터넷 유행어)으로 번지고 있다. 이는 민 대표가 지난달 25일 모회사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이후 벌어진 일이다.

이날 민 대표는 필터링 없는 새로운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면서, 방 의장,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와 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뉴진스가 'Ditto(디토)'로 '빌보드 핫100'에 올랐을 때 나는 대화가 격한 반응을 불러왔다. “ㅎㅎ 즐거우세요?”로 시작해 “뭐가 궁금한 건데요?”라고 마무

리되는 이 짧은 대화는 공개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포털과 SNS에 ‘즐거우세요?’를 치면 정말 다양한 패러디가 튀어나온다.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대한축구협회(KFA)를 향해 정몽규 회장을 언급한 패러디부터 각종 병원과 음식점들의 광고 문구에도 사용 중이다.

민 대표의 격한 욕설은 ‘진정한 힙합’, ‘국힙원탑’이라는 칭송(?)과 함께 여러 음원이 입혀졌다. 패러디 영상은 이들만에 조회 수 100만 뷰를 찍는 기록을 세웠으며, 현재 해당 영상은 조회 수가 300만 뷰를 넘어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 대표가 이날 입은 의상도 검색의 대상이었다. 결국, 모자와 티셔츠 판매처에 ‘품질’이 뜨게 만들었다. 심지어 민 대표의 모습과 그의 발언을 영어로 번역한 문구가 담긴 프린팅 티셔츠까지 등장했다. 이 모든 패러디가 실제 내용 해결과는 조금 떨어진 ‘이슈거리’로 되어버렸다는 비판도 있지만, 어마어마

## 민희진 대표 필터링 없는 발언 다양한 밈·영상 패러디 쏟아져

## 하이브 단월드 연루설 퍼지며 군복무 BTS 거론... 팬덤 분노 내용 삼킨 이슈거리 전략 비판

한 파급력의 기자회견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이 파급력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하이브와 한 명상단체와의 연관설이다. 한 명상단체와 하이브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었는데, 이 소문은 ‘오소름’이란 반응 프레임과 함께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이 소문은 급기야 하이브의 메인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BTS)에게로 향했다. BTS의 활동 곡부터 의상, 액세서리 등에 이 명상단체의 표식과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들이 나온 사이버대학까지 해당 명상단체와 밀

접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까지 덧붙여지며 거대한 소문이 됐다.

이는 하이브 소속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와 르세라핌에게까지 번졌다. 이들의 안무가 해당 명상단체의 체조와 비슷하다거나, 이들이 안무연습 전 준비하는 명상프로그램까지 언급됐다.

문제는 이 당황스러운 소문을 거의 사실화해서 ‘소름’, ‘무섭다’라고 반응하는 이들이 진짜 존재하고 현재 군 복무에 힘쓰고 있는 BTS가 뜬금포 프레임에 갇힌 상황이다. 팬들은 해당 프레임에 격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소속사의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2일에는 해당 명상단체로 지목된 단월드 측이 최근 온라인에서 기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의적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하며 하이브, BTS와의 연관설을 일축했다. 단월드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뉴진스의 ‘OMG’ 뮤직비디오 내용으로 임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으로 인해 네티즌들이 단월드와

연관돼 있다고 퍼트린 악성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 과정은 그야말로 하이브를 멍들게 하고 있다. 확실한 팩트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가는 동안 여기저기서 등장한 각종 의혹과 프레임은 그도를 넘은 상황이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지난달 22일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불응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같은 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5월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5월 말까지는 주총이 열릴 것”이라며 “추가로 드릴 말씀은 5월 13일까지 (재판부에) 드리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하이브와 어도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의 상반된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혼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티스트와 관련 스태프, 직원들의 수고가 허무함으로 남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기정아 기자 jjong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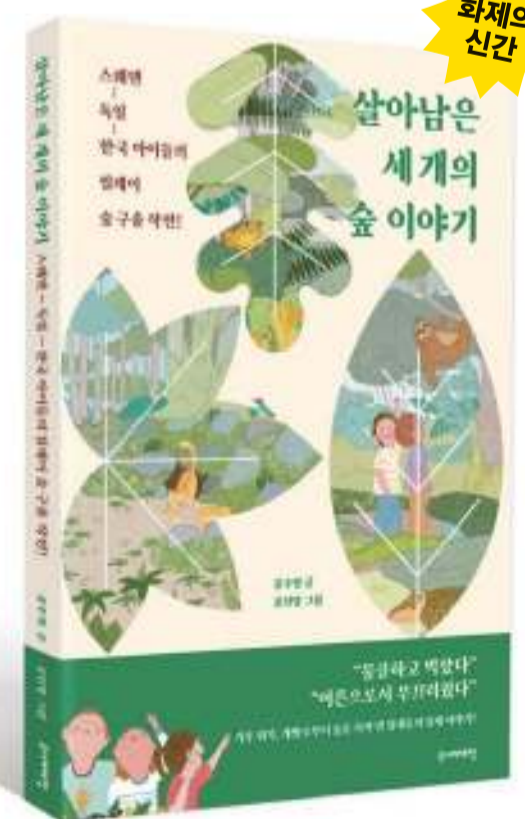
## 환경 파괴, 개발로부터 숲을 구한 스웨덴-독일-한국 십대들의 실제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탄탄하고 흥미롭게 쓰인 청소년 환경 논픽션!

- \* 스웨덴 십대들이 구한 코스타리카의 ‘영원한 어린이의 숲’
- \* 독일의 아홉 살 소년 펠릭스 핑크바이너에서 시작된 ‘나무 1조 그루 심기 운동’
- \* 원시림 ‘꽃자왈’ 개발을 막은 제주의 아이들

- ◆ “세 편 모두 실화란 점이 어른으로서 부끄럽게 한다.” — 신경준(송문중학교 환경교사, 환경교사모임 공동대표, EBS중학 환경 강사)
- ◆ “어른들은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은데 아이들은 일단 해 본다. 지구가 계속 숨 쉬는 건 이런 사람들 덕분이다.” — 이용규(선홍초등학교 교사)
- ◆ “걱정, 불평만 늘어놓지 말고 책의 주인공들처럼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키자! 책을 읽는 내내 몽글하고 벅찼다.” — 안도연(안산초등학교 교사,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모임 회원)
- ◆ “동물, 숲, 강, 바다, 지구를 지키려는 청소년들의 행동이 지역, 나라,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 책은 그 거대한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 문용포(꽃자왈작은학교 대표교사)

살아남은 세계의 숲 이야기 | 글 공주영 | 그림 공인영 | 184쪽 | 14,000원 | 주니어태학



화제의 신간

# “내 삶에 지대한 영향 끼친 ‘70년대 문화’ 나누고 싶어”

## ‘올해 프로그래머’ 허진호 감독

“전주국제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있다. 한국 독립영화에도 많은 기회를 주는 영화제다. 5~6번 정도 방문했는데, 올 때마다 좋은 기억을 가져간다.”

2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베스트웨스턴 플러스전주호텔에서 열린 ‘J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기자간담회에서 허진호 감독은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기억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주 출신이기도 한 허 감독은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올해의 프로그래머’를 맡았다. ‘J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는 선정된 감독이나 배우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영화들을 소개하고 관객과 함께 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백현진 배우가 맡았다.

허 감독이 선택한 다섯 편의 영화는 △하길중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 (1795) △빔 벤더스 감독의 ‘파리, 텍사스’ (1984)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동경 이야기’ (1953) 그리고 자신의 작품인 ‘봄날은 간

다’ (2001)와 ‘외출’ (2005)이다. 허 감독은 “어렸을 때 재개봉관에서 ‘바보들의 행진’을 혼자 봤다. 80년대에 중등학교를 보냈는데, 이상하게 70년대의 문화에 더 익숙했다. 70년대의 문화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질문하면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 감독 “전주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성 영화… 놓치지 말아야”

다’ (2001)와 ‘외출’ (2005)이다.

허 감독은 “어렸을 때 재개봉관에서 ‘바보들의 행진’을 혼자 봤다. 80년대에 중등학교를 보냈는데, 이상하게 70년대의 문화에 더 익숙했다. 70년대의 문화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질문하면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파리, 텍사스’에 대해서는 “큰 서사를 가진 영화보다 더 깊게 느껴졌다. 영화에 나오는 OST 음반을 사서 듣기도 했다. 라이 쿠더(Ry Cooder)의 기타 연주가 참 좋다”고 말했다.

‘동경 이야기’는 영화아카데미를 졸업한 허 감독의 초창기 영화들에 큰 영향을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이틀째인 2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열린 ‘J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기자간담회에서 허진호 감독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쳤다. 그는 “영화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박광수 감독의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 조연출을 끝내고 파리로 여행을 갔다. 그곳에서 ‘오즈 야스지로 특별전’이 열렸는데, 이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됐다”라

고 설명했다. 허 감독은 “영화가 이런 삶의 깊이까지 다룰 수 있구나 생각했다. 내가 초창기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오즈의 세계관과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런 생각에 이 영화를 선택

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주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성 영화’ = 허 감독의 말처럼 전주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있다. 다른 영화제들과는 달리 예술영화, 실험영화, 독립영화를 주로 소개하는 특성 때문이다. 올해 공모작은 총 2260편으로 지난해보다 357편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구체적으로 국제경쟁 부문은 총 747편이 접수돼 전년 대비 143편 증가했다. 한국영화는 총 1513편으로 전년 대비 214편 늘었다. 한국경쟁 134편·한국단편 경쟁 1332편·지역공모 47편이다.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은 ‘우리는 늘 선을 넘지(Beyond the Frame)’이다. 다양성 영화를 통해 언제나 영화의 경계를 넘고,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는 것. 그것이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체성이다.

문학 프로그래머는 올해 작품 경향성에 대해 “코로나19의 힘든 여건 속에서 새로운 불씨를 틔우려는 영화인들의 강한 의지와 희망이 작품 안에 녹아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송석주 기자 ssp@

## 현미경처럼 자세히, 때론 망원경 통해 멀리서 마음 관찰하기



### 개막작 ‘새벽의 모든’

후지사와(카미시라이시 모네 분)와 아마조에(마츠무라 호쿠토 분)는 ‘쿠리타 과학’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이 회사는 교육용 현미경과 망원경을 제작하는 업체다. 두 기구의 공통점은 물체를 확대한다는 데 있다. 현미경은 작은 물체를, 망원경은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한다.

후지사와와 아마조에가 그리 유망하지 않은 쿠리타 과학에 근무하게 된 이유는 각각 PMS(월경 전 증후군)와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어서다. 쿠리타 과학에서 만난 두 사람은 처음에 불화하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점차 마음을 연다.

영화 속 등장하는 현미경·망원경 도구에 사람의 마음 투영해 위로

그들은 쿠리타 과학에서 제작하는 현미경과 망원경처럼,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때론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망원경으로 멀리서 관찰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는 데 있다.

영화에는 몸 상태가 나빠진 후지사와가 급히 조퇴하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후지사와는 깜빡하고 휴대폰을 회사에 놓고 조퇴한다. 아마조에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후지사와의 휴대폰을 갖다 주러 자전거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간다.

이 에피소드는 아마조에가 회사에서 출발하고, 후지사와의 집에 도착하는 두 장면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미야



영화 ‘새벽의 모든’ 속 한 장면.

케소 감독은 아마조에가 후지사와의 집으로 가는 여정을 길게 묘사한다.

이같은 비효율적인 장면 진행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도착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후지사와의 집 앞에도 착한 아마조에는 휴대폰을 문앞에 놓고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 후지사와를 배

려하기 위해 대면해서 전달하지 않는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아마조에는 봉어빵을 사서 동료들에게 나눠준다.

처음에 아마조에는 후지사와가 늘 먹을 것을 사서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불만이였다. 나중에 아마조에는 그 이유가 PMS로 인해 동료들에게 짜증 부

린 뒤 미안해서 하는 행위였다는 걸 알게 된다.

두 사람이 현미경과 망원경을 통해 들여다본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아니라 삶의 풍경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후지사와는 아마조에를 통해, 아마조에는 후지사와를 통해 그 풍경을 본 것이다.

그 시선은 상대방의 마음과 삶의 풍경을 경유해 나로 향한다.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 옆에는 늘 다른 인간이 있다. 우리는 그 인간을 친구라고 부른다.

복극성이 유난히 빛나는 이유가 ‘방향’을 알려주는 친절한 ‘별’이기 때문이다. 영화 속 대사는 의미심장하다. 선부른 참견이나 위로가 아닌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별. 좋은 친구 역시 그렇다. ‘새벽의 모든’이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고 치유하는 방법이다.

전주=송석주 기자 ssp@

## 켈시 맨 감독 “13살 된 라일리 성장기… 불안한 청소년들의 이야기”

### ‘인사이드 아웃2’ 풋지 상영회

“내가 좋아했던 속편들의 특징은 캐릭터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속편을 반복한다는 생각이 아닌 오리지널처럼 생각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

2일 전북 전주에 있는 ‘픽사 돔’에서 열린 ‘인사이드 아웃 2 풋지 상영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기자들과 화상으로 만난 켈시 맨 감독은 이번 영화의 연출 포인트를 이같이 설명했다.

2015년에 개봉한 피트닥터 감독의 ‘인사이드 아웃 1’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감정인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등을 의인화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11살 소녀 ‘라일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을 캐릭터로 만들어 한 소녀의 마음의 풍경을 기발하게 재현한 것.

속편 아닌 오리지널이라고 생각  
와이드 스크린서 9개 감정 확장

속편의 연출을 맡은 켈시 맨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 워낙 다양한 감정에 대해 ‘불안’, ‘당황’, ‘따분’, ‘부럽’ 캐릭터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는 13살이 된 라일리가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조금 더 복잡한 감정으로 표출하기 위해서다.

켈시 맨 감독은 2편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으로 ‘불안’을 꼽았다. 그는 “새로운 감정을 추가할 때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다. 나는 불안에 굉장히 매료됐다. 특히 불안은 사춘기 청소년 때 생기는 감정인데, 이는 코로나19와 맞물린 측면이 있다. 이 시기 불안한 청소년들의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 속 한 장면.

사진제공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이날 화상 회견에 함께 참석한 프로듀서 마크 니슨은 “속편의 주제는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자신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거나 용납하는 걸 어려워한다.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면 절대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주위의 이런저런 목소리들에 대해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인사이드 아웃 2’에는 총 9개의 감정이 등장한다. 이를 위해 켈시 맨 감독은 와이드 스크린을 사용했다. 고등학교 입학 앞둔 라일리의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화면도 확장해야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번 영화의 주된 구도는 새롭게 등장한 ‘불안’, ‘당황’, ‘따분’, ‘부럽’ 캐릭터와

기존의 감정들인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캐릭터의 대립이다. 하지만 대립은 공존을 넘어 상생으로 향한다. 영화는 성장하기 위해선 모든 감정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만큼 필요하다는 간명한 이치를 전한다.

한편 ‘픽사 돔’은 가정의 달 5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들과 함께 픽사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인 셈이다. 영화제 기간 픽사 돔에서는 ‘인사이드 아웃 1’, ‘토이스토리 2’, ‘라따뚜이’, ‘월-E’, ‘엘리멘탈’ 등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은 픽사의 영화들이 상영된다.

또한, 픽사 돔에서는 픽사 애니메이션 굿즈를 판매한다.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등도 마련돼 있다. 픽사 애니메이션을 사랑했던 팬들에게 추억의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송석주 기자 ssp@

# “복길이는 내 운명... 진심 다했다면 그때가 전성기죠”

## 데뷔 30년째 배우 김지영

어쩌면 누군가는 ‘복길이’ 이미지에 가뉘 바라봤을지도 모른다. 그 이미지를 벗기 위해 김지영은 부단히 노력했다. 어느덧 데뷔 30년 차 배우가 됐는데, 이제는 자신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연기학과 교수로서 후배들을 이끌고 있으며, 삶을 관망하는 여유도 생겼다. 유명인과 일반 대중의 관계는 ‘인기’로 증명되는 터. 그는 “인기란 야속한 것 같다.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다”면서 양면성을 언급했다. 현재는 큰 인기를 바라지 않는다. 아들한테 인기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희귀병을 앓아 부모님 속을 썩였다고 생각하는 딸이기에 자식을 향한 애정이 더욱 특별하다.

-MBC ‘전원일기’와 복길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복길이 이미지 때문에 다른 역할을 못 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디션도 많이 보고, 사이코패스역역, 유 흥업계 인물 등 갖은 역할에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복길이로 인해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죠. 나이 들고 보니 배우로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성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고마운 작품이죠. 그리고 좋은 선배님들과 호흡하면서 연기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전원일기’는 결국 저의 학교였다고 생각해요.”

-SBS ‘토마토’에서 악역 연기를 펼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때가 전성기였을까요?

“MBC에서 ‘그대 그리고 나’ (1997년)로 신인상을 수상한 후라 자신감이 올라와 있었죠. 악역 제안이 들어왔을 때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겠다 생각에 출연했고, 촬영도 재밌게 했죠. 광고도 그때 제일 많이 찍었어요. 그렇다고 그때를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번 진심을 다해 연기해서 작품 할 때가 늘 전성기라고 느껴요.”

-남성진 씨와는 동료에서 남편이 된 케이스인데, 관계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셨나요?

“‘전원일기’를 8년간 촬영하면서 정말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죠. 이후 남편의 고백으로 사귀었는데 연애 기간은 불과 6개월이었어요. 그중 5개월은 제가 중국에서 촬영했죠. 연애다운 연애를 한 적이 없는데 바로 결혼하려니 조금 무섭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우정과 사랑을 구분 못한 것이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결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사람, 내 가족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면서 사이가 깊어졌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부부간 소통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 부부는 성격이 극과 극이라서 지금도 종종 싸워요. 남편이 화가 많고, 버력하는 스타일이예요. 불같은 성격이죠. 그래서 말다툼으로 번지는데, 다행히도 저희 둘다 금세 잊어버리곤 해요. 남편은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성적으로 대화가 될 때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려고 해요. 특히 아이 문제로 대화할 때는 아이의 생각을 가장 먼저 수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을 내리죠.”

-얘기를 나눠보니 아드님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이가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할 수 있

는 엄마가 되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네 삶이 너무 없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제 삶이라고 생각해요.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아이 옆에 많이 있어 주려고 노력했어요. 평소에는 편지나 메모를 남겨서 마음을 표현했고, 촬영이 없는 날에는 즉흥적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죠.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같이 있는 시간이 줄었어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 여자 친구가 생기면 나와 놀아줄 시간이 있을까 싶어요. (웃음)”

-과거 방송에서 보니 아드님도 배우가 되고 싶어 하던데요. 3대 배우 가족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하더니,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부모님, 조부모님한테 먹칠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더라고요. 그 부담

### 이미지 바꾸려 악역 도전 예술영화·카메오 출연도 남편과 다투도 바로 화해 고부갈등? 대화로 풀어요 예대 학과장 맡은 지 7년 학생 가르치며 함께 성장

감은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시부모님이 배우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남편은 평생 그 부담을 안고 살았죠. 우리 아이는 그 부담이 배로 커진 거 같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연기가 정말 하고 싶으면 해라. 너의 색깔을 찾으려 노력’하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인 배우 김용림 씨와의 고부 관계가 특히 주목받는데요.

“굉장히 순탄한 고부 관계라고 생각해요. 같은 분야에 있으니까 잘 이해해주세요. 제가 종갓집 며느리인데 촬영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낼 때도 있고, 촬영이 늦어져 새벽 5시에 집에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어머니께서 이해를 넘어 ‘얼마나 힘드니’라고 위로해주시죠. 그런데 여느 관계와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어머니께서 섭섭했던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도 속상한 점을 얘기하기도 하죠. 어느덧 어머니와 함께 한 세월이 20년이나 되다 보니,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어떠신지 알겠더라고요. 전화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달려갑니다. (웃음)”

-부모님에게는 어떤 딸이었나요?

“어릴 때부터 희귀병으로 몸이 약했으니까 늘 집안의 걱정거리였다고 생각해

요. 제가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부모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었어요. 배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몸도 안 좋은 애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셨겠죠. 그런 마음을 아니까 창피하지 않은 자식이 되고 싶어서 더욱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순간, 너무 우리 애만 챙기느라 부모님에게 신경을 못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회가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희귀병 투병으로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겠어요.

“등에 혈관이 엉겨 붙는 혈종이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가족들이 저를 살려보겠다고 별걸 다 해봤는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유서를 써놓기도 했어요. 말로 전하지 못한 얘기들을 남겨놓기도 했죠.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 수술 후 완치돼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주어진 삶이 감사하고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찌 보면 배우 활동이 체력이 강해진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50대가 되었는데, 중년 배우의 삶은 어떤가요?

20대 때는 작품을 한 번에 2-3개씩 하면서 바쁘게 보냈어요. 결혼 후인 30대, 40대 때 삶도 안정되고, 연기를 진심으로 생각하게 됐죠. 5년 전쯤부터 선배로서 안주하고 싶지 않고,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 출연하려고 했죠. 선배님 또는 감독님이 부르시면 예술 영화도 카메오 출연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예술대학교 연기예술과 학과장을 맡은 지도 7년이 됐네요.

저는 선생님이라기보다 선배라고 생각해요. 먼저 연기한 사람으로서 습득한 기술을 알려주려고 하죠. 오히려 제가 열정을 수혈받고 있어요. 사실 연기 활동을 하면서, 아이도 돌보면서, 학교 일도 하는 게 체력적으로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학생들과의 연계성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김지영에게 ‘관계’란 무엇일까요?

저는 소심하기도 하고, 관계에 예민한 편이에요. 지인들에게 마음 표현도 잘 못 했는데, 이제 용기 내서 먼저 다가가려고 해요. 모든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관계의 주체가 자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좋은 관계도 성립되고, 많은 상처를 받지 않을 테니까요. 또 너무 애쓰지 않아야 재밌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글/ 손효정 기자 shjlife@ 사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 물[水] 오르다

산업용 수처리 전문기업에서 **종합환경기업**으로  
대한민국 대표 환경기업에서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초순수 생산



토털 수처리 솔루션



폐수재이용/해수담수화



연구 및 기술개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 빌딩 6층, 17층 02-6371-3900 hasco@hscleantech.com

관계사





# “美나사 경험·한국적 팀워크 결합...월드클래스 가능”

## 존 리 우주청 임무본부장 내정자

나사 29년 근무한 우주 전문가 R&D·관련산업 육성 업무 총괄 “목표·국제표준·핵심가치 등 세 가지 방향 지향점 추구할 것”



존 리(왼쪽)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 내정자가 2일 오후 서울 중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영빈(가운데) 우주항공청장 내정자,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내정자도 함께 참석했다.

“미국 우주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협력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초대 우주항공임무본부장으로 내정된 존 리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위임원은 2일 서울 중로구에서 진행된 우주항공청 내정자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와 노경원 차장 내정자도 참석했다.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본부장은 1급이지만 가장 핵심 역할을 총괄하는 만큼 연봉을 대통령과 같은 2억5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리 본부장은 1992년부터 나사

에서 근무를 시작해 나사 헬리오피직스 프로젝트 관리자,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위성 통합관리본부장, 수석 어드바이저 등으로 근무하는 등 29년간 재직하며 굵직한 우주 프로그램을 관리해 온 우주 분야 전문가로 나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주항공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과제를 맡았다.

리 본부장 내정자는 임무본부의 조직적 성격으로 목표지향, 국제표준지향, 핵심가치 지향이라는 3가지 방향을 내세웠다.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

한 후 R&D를 전개하고 업무적 탁월함, 협력, 진정성 등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NASA 체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며 “한국 문화에서 필요한 것은 팀워크다. 우주항공청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다면 한국도 충분히 월드 클래스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우주 수송부문장 △인공위성 부문장 △우주과학탐사 부문장 △항공혁신 부문장 등 총 4개 부문

장을 휘하에 두고 발사체 R&D부터 위성 R&D 개발을 지휘한다. 윤 청장 내정자는 개청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문장 인선을 꼽았다. 그는 “임무본부장 산하의 부문장 역할이 중요하다”며 “심사숙고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개청을 앞두고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 내정자는 “우주산업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산업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늦은 감은 있지만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의 궁극적 역할은 기존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은 고위험, 장기 미래우주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형태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 정원은 293명이지만 27일 개청 시점에는 임기제 공무원 50명과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온 일반직공무원 55명 등 110명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리 기자 nari34@

## 콜마홀딩스, 윤상현 대표이사 선임

윤상현(사진) 콜마 그룹 부회장이 지주사 콜마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콜마홀딩스는 2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윤상현 부회장의 대표이사 선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병준 전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면서 윤 부회장은 이사회에 추대를 받아 대표이사에 나서게 됐다.

콜마홀딩스는 이번 윤 부회장의 대표이사 선임으로 콜마그룹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kij42@

## 한국로슈, 예жат 아젝 대표이사

한국로슈는 이달 1일부로 로슈그룹 제약 사업 부문 한국법인 한국로슈의 대표이사에 예жат 아젝(사진)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예жат 아젝 신임 대표이사는 1997년 로슈그룹 이스라엘 지사 합류 이후 약 27년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마케팅 사업부 리더로서 주요 품목의 출시와 성장에 기여했으며,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로슈 그리스 법원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한성주 기자 hsj@

한성주 기자 hsj@

## LG 올레드 예보가 재해석한 故 김환기 작품

### ‘프리즈 뉴욕’ 미디어아트 5점 전시

LG전자는 2일(현지시간)부터 4일간 열리는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뉴욕’에서 故 김환기의 작품을 재해석한 미디어아트 5점을 2024년형 LG 올레드 예보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미디어아트 제작에는 박제성 서울대 교수, 안마노 작가, 김대환 작가 등 국내 유명 디지털 아티스트가 참여했다. 또한 뉴욕한국문화원이 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문화원 개원 45주년 및 신정사개관을 기념해 마련한 특별전에서 故 김환기의 추상화 원작과 함께 LG 올

레드 예보의 미디어아트가 전시된다.

2024년형 LG 올레드 예보는 올레드 전용 인공지능(AI) 화질·음질 프로세서인 ‘알파11’을 탑재했다. 알파11은 콘텐츠 제작자의 의도와 사용자의 취향을 스스로 파악해 영상을 픽셀 단위로 세밀하게 보정하고, 2채널 음원을 가상의 11.1.2 채널로 변환해 풍성한 공간 사운드를 들려준다. 또 최대 4배 향상된 AI 디피닝 성능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목소리를 구별해 개인별 맞춤 콘텐츠 추천 및 화질 설정을 제공한다.

오혜원 LG전자 HE브랜드커뮤니케이션 담당은 “LG 올레드 예보로 한국의



LG전자가 2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프리즈 뉴욕’에서 김환기 타계 50주기를 맞아 작가의 대표작을 재해석한 미디어아트를 공감지능(AI) TV ‘LG 올레드 예보’로 선보인다. 사진제공 LG전자

대표 작가 김환기를 뉴욕에 소개해 자랑스럽다”며 “공감지능으로 한층 진화한 LG 올레드 예보를 통해 예술가에게

창작 영감을, 고객에게는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 KB국민카드, 취약노인 지원 후원금 1억5000만원 전달



KB국민카드(대표 이창권·사진 왼쪽)가 취약노인 지원을 위한 후원금 1억5000만 원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전달된 후원금은 취약노인 보호 및 복지 전문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절기별 식품키트(쌀, 보양식 등)와 혹서기 냉방용품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정상원 기자 jsw@·사진제공 KB국민카드

## ‘롯데어워즈’ 대상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오픈한 롯데백화점

### 신동빈 회장 “강력한 실행력이 경쟁력 끌어올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일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 성과를 낸 임직원들을 포상하는 ‘2024 롯데어워즈’ 시상식에 참석해 그룹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력한 실행력’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시상식에 직접 참석해 “혁신과 도전적인 아이디어에 강력한 실행력이 더해진 성과들이 그룹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면서 “앞으로도 과거의 성공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올해로 44번째를 맞은 롯데어워즈는 임직원들이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 이룬 성과를 보상하는 자리다. 매년 내외부 심사위원이 서류 심사와 PT를 거쳐 최종 수상팀을 선정한다.

대상은 베트남에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성공적으로 오픈한 롯데백화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9



‘2024 롯데어워즈’ 시상식에 참석한 신동빈(맨 앞줄 가운데) 롯데 회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월 오픈한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오픈 122일 만에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지난달 기준 누적 방문객 600만

명을 기록하는 등 베트남 현지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 동서식품 ‘꿈의 도서관’...대전 봉산초에 도서 지원



최상인(왼쪽) 동서식품 홍보상무가 2일 김미애 대전봉산초 교장에게 ‘2024 동서식품 꿈의 도서관’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동서식품

동서식품은 2일 대전 서구에 있는 봉산초등학교(봉산초)에서 초등학교도서지원 프로그램인 ‘2024 동서식품 꿈의 도서관’을 진행했다. 꿈의 도서관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독서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 도서를 기증하고 도서관환경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동서식품은 2017년 충북 진천 상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매년 초등학교 한 곳을 선정해 도서 기증과 함께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추천으로 봉산초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지영 기자 kij42@

## 부음

▲박광동 씨 별세, 김월순 씨 남편상, 박형준(GC녹십자 오창공장 본부장)·형상(현대제철 실장)·형재(악조노벨분체도료 이사) 씨 부친상 = 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30분, 02-3410-3151

▲김재철(전 한국일보 기자) 씨 별세, 김명진(이노그리드 대표이사) 씨 부친상 = 2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4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30분, 02-2268-6919

▲이용순 씨 별세, 변승재·윤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호재 씨 모친상, 김보화·윤정주·이유진 씨 시모상, 변희문 씨 부인상 = 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4일, 02-2072-2010

문학의 쫓



이승하  
시인·중앙대 교수

석달 전쯤에 정선카지노에 갔다 왔다. 글을 쓰다가 현장을 보지 않고 쓸 수는 없기에 그곳이 고향인 후배 시인의 안내를 받아서 가보았다. 눈이 펄펄 내리는 날이었다. 그곳의 정확한 주소는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1이다. 요즘은 '정선카지노'란 말은 잘 쓰지 않는다고 한다. '하이원 리조트 내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정확한 명칭이라고 후배는 들려주었다. 안내 팸플릿에는 건전한 게임문화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것이 강원랜드의 목표라고 되어 있고, '도박은 NO! 게임은 YES!'라고 적혀 있기도 했다. 그런데 과연 그곳이 건전하게 게임을 하고 오는 곳일까?

밤이 깊어갈수록 드넓은 실내 게임장에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영화에서만 보던 블랙잭, 바카라, 캐리비안

가 머금어져 있는 적은 없었다. 이곳 사람들처럼 그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다.

잃은 사람이 다수고 판사람이 소수인 모양인데 내 눈에는 모두 잃은 사람만 들어온 것일까? 판 사람은 친구들에게 한턱내려고 경마장 근처 주점으로 갔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경마공원역에서 타거나 내리던 사람들의 표정보다 강원랜드에서 본 사람들의 표정이 더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착각한 것일까? 후배의 차를 얻어타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갔는데 그 넓은 주차장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바카라가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까지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게임의 천국, 아니 도박 지옥에서

스터드 포커, 쓰리카드 포커, 텍사스 홀덤 포커, 카지노 워, 룰렛, 빅 휠, 다이사이, 머신게임 등 온갖 게임이 시야를 어지럽히며 전개되고 있었다. 탄식과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는데 환호성은 이상하게도 들려오지 않았다.

이 모든 게임이 신기해서 나는 후배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돌아다녔는데 후배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면서 나의 흥분을 자제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렇게 웃으면 수익만 사람으로 아니까 조심하라고 했다. 게임하는 사람은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했다. 밝은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심각하지 않으면 침울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가보았을 때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두운 표정을 한 사람은 보질 못해서 고개를 가웃 거렸다. 경마공원역에서 전동열차를 우르르 타고 내리는 이들이 있었다. 경마공원역에서 시험이 있는 날은 열차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거나 미소

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19세 미만 청소년 1035명(35.4%)을 포함한 총 2925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친구 소개나 SNS 광고 등을 통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유입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니 기가 찬다. 검거된 도박사범 3명 중 1명이 청소년이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학교 교사나 부모가 청소년 도박을 막을 수 없다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포물건을 제공한 청소년도 23명이 적발됐다고 한다. 경찰은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 수익 619억 원을 환수했지만 퍼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니!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 모두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가. 일단 내 아이가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치료가 끝난 아이는 도박에서 손을 완전히 떼도록 우리 모두 전심전력 해야 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골다메이어 명언

"높다는 것은 비행기가 폭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당신이 승객이 된 이상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다."

이스라엘의 여성 정치가. 유대노동총연합 여성노동위원장, 초대 소련 주재 공사, 노동장관, 외무장관 등을 거쳐 총리를 지냈다. 사망 후에 그가 12년 동안 백혈병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오늘은 그녀가 태어난 날. 1898~1978.

☆ 고사성어 / 불기자심(不欺自心)

성철 스님의 '불기(不欺)'에 원택 스님의 '자심(自心)'이 합쳐져 세상에 나온 말.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마라'는 뜻. 원택이 출가 전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뵈고 평생 삶의 지침이 될 좌우명을 내려 달라고 했다. 24시간 부처님께 1만 배를 하고 나서 받은 좌우명이 '속이지 마라'였다. 원택은 '자기를 속이지 마라'로 해석하면 평생 지키기 힘든 말이

라는 것을 깨달아 출가했다. 원택은 스스로 무엇을 속이지 말라는 데 대한 대답을 '자심(自心)'이라고 터득했다.

☆ 시사상식 / 초미지 위험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초미지 요인들(unknown unknowns)이 표면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뜻한다. JP모건이 향후 미국 경제 침체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경고하는데 활용해 생긴 말.

전략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해 말에서 2024년 1분기 사이에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JP모건 수석 전략가 두브라브코라 코스-부하스는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또 다른 초미지 요인들이 다시 표면화될 위험이 높아 보인다"며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에 따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멧있는살 연구소장

이슈&인물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 '협약'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인권·환경이 지속가능경영의 토대”

“법무법인 지평은 올해 3월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기업의 책임 있는 기업 행동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임성택(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는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평과 RBA는 이번 공식 협약을 계기로 △국내 기업·자회사·공급망에 관한 지속가능성 실사(Due Diligence)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 대응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RBA는 전자·소매·자동차·장난감 회사들로 구성된 비영리 기구로, 글로벌 공급망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근로자와 지역 사회의 권리 및 복지를 향상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2004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 산업 연합체다. 올해로 창립 20년을 맞는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2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글로벌 공급망 재편 맞아 한국 산업 '지킴이' 자처= RBA 회원사는 500곳이 넘는다. 쉘컴·소니·포드·GM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다국적 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120여 개 나라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하만, SK하이닉스, SK 키파운드리,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이 가입했다.

RBA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맞추고 까다로운 조사에 대응하고자, 우리 기업들은 4~5명 이상 인원으로 구성된 RBA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을 만큼 수출과 국제통상 부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임 대표변호사는 “공급망 내에서 사회적·환경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RBA 회원들은 공통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RBA는 책임 있는 공급망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근로자·정부·민간단체·투자자는 물론 학계와 정기적으로 소통,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관리 부담 ↑...희토류·요소수 이어 흑연 리스크까지= 글로벌 공급망은 올 상반기 경영 환경에서 큰 화두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 공급망과 경쟁력 보호를 위한 정책·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에 공급망 관리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구매와 소싱, 생산과 판매 거점 전략에 대한 점검·준비는 전자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기가. 특히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국내 산

다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자국 중심주의, 경제 블록화 등을 특징으로 하지만 지속가능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시 한 축을 담당하므로 지속가능한 공급망과 비즈니스를 위해 활동하는 RBA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환경실사까지 확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과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인권·환경 실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토종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 신설 기업 사회적책임 강화 가이드라인 아동·강제노동 감시해 취약층 보호

업계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다. 희토류, 요소수에 이어 흑연까지 수출통제라는 중국발 리스크는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걱정거리다.

RBA 회원들은 2008년 RMI(책임 있는 광물 이니셔티브)를 창설했다. RMI는 공급망 내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RBA는 채용 공급망을 공유하는 여러 산업에 통일된 기준의 실사 필요성을 느끼고 2017년 책임 있는 노동 이니셔티브 'RLI' 또한 출범시켰다. RLI는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임 대표변호사는 “RBA는 EICC (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로 시작한 2004년부터 전자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실사 정책과 도구들을 개발해 왔다”면서도 “RBA가 미·중 무역분쟁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평은 2019년 토종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을 신설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임 대표변호사 총괄 아래 지금까지 제조·정보통신(IT)·건설·자동차·제약·에너지·화학·부동산·식품·엔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 인권 실사, 고충처리절차 구축 등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에 민정욱 변호사가 풀무원, 정현찬 전문위원은 SM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자문위원으로 인권실사를 이끌었다.

지평은 2021년 말 세계적인 인권경영 컨설팅 업체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달 정기회의를 함께하며 인권실사 동향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2022년 8월에는 아시아 로펌 최초로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운영기관인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BA)' 회원사 자격을 획득했다. 지평은 지난해 2월 '인권경영 해설서'를 출간하는 등 인권경영 부분 실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전환점 맞고있는 북한 우주개발

유엔과 개별 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아온 북한은 방사능 등의 다양한 우주환경에 내구성을 갖는 우주급뿐만 아니라 FPGA(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 프로세서, 고주파집적회로 등의 각종 반도체 부품을 포함한 상용급의 고성능 전기전자부품의 독자개발도, 해외구매도 어려웠다. 이는 북한이 고성능 정찰위성 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 추정의 이유가 되어왔다.

세계적으로 뉴 스페이스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마이크로급의 소형위성 개발 및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소형위성에 사용되는 뉴 스페이스용 상용부품, 구성품, 부체계 및 소프트웨어, 특히 주로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연구 개발하는 초소형 큐브셋 위성 부품 및 구성품 등의 구매에는 ITAR(국제무기거래규정)과 민간의 수출통제 승인도 불필요하다.

최근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센터(CAR)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여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된 화성-11형(KN-23) 단거리탄도미사일(중거리탄도미사일)의 항법장치 잔해물에서 수거한 인쇄회로기판 및 전기전자부품을 조사 분석하였다. 항법장치에 장착된 전

자부품은 모두 290개 이상이었으며 이 중에 75%는 미국산, 16%가 유럽산, 나머지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 및 중국 부품으로 식별되었다.

모두 26개의 부품회사를 확인하였다. 부품 중 약 75% 이상이 2021년과 2023년 사이에 생산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의미는 북한이 가장 최신의 부품을 확보 및 사용하여 신형 탄도미사일을 생산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통해 다양한 성능의 전기전자부품을 획득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란, 러시아 등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무기체계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반도체 및 전자부품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최근 들어 뉴 스페이스용 고성능 소형위성에 저가의 자동차용 인증부품(AEC-Q)을 포함하는

##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  
前 한국항공대학교수



상용부품의 활용이 대세가 되고 있다. 자동차용 인증부품은 15년 이상의 내구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인증시험을 완료한 상태이다. 따라서 위성용 부품으로 전용할 때 방사능 등의 우주환경에 대한 내구성을 추가적으로 분석 평가 및 검증만 하면 바로 위성용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다. 결국 제3자를 통한 고성능의 자동차용 인증부품 등 상용부품의 불법적 구매 및 획득은 북한이 고성능 위성을 개발하는 데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향후 북한의 고해상도 및 고성능의 차세대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러시아 설계기술을 접목하고, 고성능의 핵심 부품 및 구성품을 러시아가 직접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국제 제재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작년 11월

에 발사한 만리경-1호 정찰위성과 올 한해 추가 발사를 예고하고 있는 3기의 정찰위성이 뉴 스페이스의 고성능 전자부품 및 구성품을 불법 취득하여 장착하고 있다면 이들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서브미터(1m 이하)급이 될 수도 있다. 상용부품 사용을 통한 고성능의 소형경량 위성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월 말 러시아는 북한 제재를 분석하는 유엔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북한 제재 감시활동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유엔 안보리의 법적 제재 수단의 무력화는 위성, 발사체 등의 북한 우주개발 및 우주기술 발전에 대대약을 위한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우주 감시정찰 및 군통신을 지원하는 우주 군사화를 넘어 우주 무기화를 선언하며 본격적으로 공격용 우주 무기체계 개발에 나설 개연성도 높다.

## 국제사회 제재불구 고급부품 조달

## 고성능 소형위성 개발가능성 높아

## 기술도약→우주무기개발 주시해야

## 글로벌 시선

# 서민경제 '춘래불사춘'

한국에서 들리는 소식을 보면 치솟는 물가 때문에 모두들 아우성이다. '사과 하나에 1만 원'이 한참 회자됐을 때 이럴 줄 알았으면 포르투갈에 올 게 아니라 고향에서 사과농사를 지었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고향에서 조그만 사과 과수원을 하시는 부모님께 사과농사로 재미를 좀 보셨냐고 했더니 모르는 소리 마란다. 지난해 사과가 냉해를 입어 오하려 시작부터 농사를 망쳤다고 한다. 결국 사과값이 그렇게 될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곳 포르투갈은 과일값이 한국만큼 비싼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렇다고 물가가 안정된 건 아니다. 때마침 포르투갈 소비자보호협회가 2년 전과 비교해 슈퍼마켓에서 과일과 채소, 고기, 생선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는 50유로로 오렌지, 사과, 바나나, 토마토, 콜리플라워 등 13가지 과일과 채소 25.35kg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하지만 2년 전엔 이 제품들을 같은 가격에 32kg까지 구입할 수 있었다. 오렌지와 양파는 지난 2년 동안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제품으로 2022년 1월 오렌지 1kg 가격이 1.08유로였지

만, 올해 4월에는 1.81유로로 67% 증가했다. 양파값은 kg당 1.90유로로 93%나 뛰었다. 물가 불안이 이어지자 포르투갈 정부는 지난 4월에 46개 필수식품에 대해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조치로 민생안정에 나섰고 일정정도 효과를 봤다. 하지만 이는 '진통제' 같은 것이어서 올해 부가세 면제가 종료되자 이 중 22개 품목의 가격이 뛰었고 서민들의 한숨은 다시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불안까지 겹치면서 안정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만리타국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나도 지금의 경제 불안을 몸소 체험하는 중이다. 지구촌 곳곳이 식탁물가는 물론이고 주택가격, 공공요금까지 꿈틀대는 데 임금은 제자리결음을 하고 있는 형상이다 보니 허리띠를 졸라맨 서민들은 우선 외식비부터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위치에 서보니 한국 '동네 사장님'들의 고충이 눈에 선하다. '춘래불사춘'. 계절은 이미 여름을 향해 가지만 마음속엔 아직도 찬바람이 분다.

코임برا(포르투갈)-장영환 통신원

## 사설

# 차포 떼고 '자율'만 강조한 밸류업, 약발 있겠나

정부가 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월의 1차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내용이다.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되 쪼개기 상장 등 '터널링' (지배주주 사익을 위해 회사이익을 빼돌리는 행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설명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작성하는 핵심 지표엔 주가순자산비율(PBR)·배당성향·배당수익률 등 재무적 사항뿐 아니라 비재무지표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도 담도록 했다. 진일보한 셈이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후진적 관행은 국내 기업 상당수의 고질병이다. 대표적으로,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오히려 일가가 소유한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런 관행을 정조준했다. 방향 설정은 올바른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차가운 시장 반응이다.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들은 어제 코스피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도 전장보다 8.41포인트(0.31%) 내린 2683.65로 마감했다. 코스닥 또한 약보합세였다. 물론 시장 변수는 밸류업 대책만이 아니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외풍 영향도 컸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을 밀어주겠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날, 시장이 죽을 쏜 것은 의미가 명확하다. 시장 참여자들은 별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만 뜯어 봐도 쉽게 이해가 간다. 그 무엇보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 시장은 '자율'만 믿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기업과 투자자 양쪽 모두의 관심사인 인센티브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달 말 배당·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번에 보다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왔어야 했다. 그랬다면 어느 정도 미풍이라도 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흥행 실패를 자초한 것이나 진배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낫는 본질적 요소가 따로 있다는 점도 무감동·무반응의 보이지 않는 요인이다. 한국 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묘약으로 상속에 개편한 한 것이 따로 있겠나. 세계 최악의 상속세 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주식시장 활성화는 헛된 꿈에 불과하다. 정책 당국자들도, 시장 참여자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쏙 빼놓고 기업 가치를 논하고, 밸류업을 말한다. 때면 이런 식이니 백날 길을 찾아봐도 힘만 빠지는 것이다. 차포를 다 떼고 '자율'만 강조해서야 어느 세월에 밸류업이 되겠는지 성찰할 일이다.

국내 기업들이 세대 교체를 맞고 있다. 상속세 리스크는 날로 커지게 마련이다. 지난해 4월과 6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빚은 상장사 오너 대다수가 60~80대였다. 왜 그들이 타깃이 됐는지 숙고할 일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속히 머리를 맞대고 관련 제제를 합리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밸류업' 간판을 단 배는 산으로 가고, 시장은 탐욕과 반칙과 흥제로 얼룩질 것이다.

## 한 컷



## 라이언·춘식이 뜬 서울페스타

카카오프렌즈 '라이언'과 '춘식이'가 광화문광장에 등장했다. 오는 6일까지 열리는 '서울페스타 2024'의 홍보를 위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나란히 서울 알리기에 나선다. 6m가 넘는 라이언과 춘식이 애드벌룬 포토존에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몰려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카카오는 4일을 제외한 행사기간 동안 라이언과 춘식이 포토카드를 광화문 포토존 앞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행사 마지막날 오후 8시 잠실한강공원에서는 '프렌즈와 떠나는 별빛 여행'을 주제로 드론라이트 쇼도 선보인다. 1000여 대의 드론이 라이언과 춘식이의 탄생

세계관을 그린다. 카카오톡 '핑'에선 라이언 서울로컬로드 콘텐츠도 연재한다. 광화문, 잠실을 시작으로 라이언이 서울의 다양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소개하는 내용이다.

드론쇼가 펼쳐질 기간 동안에는 '서울페스타 2024' (5월1~6일)와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6월1~2일)'도 열린다. 이 때문에 드론쇼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양한 문화 예술공연도 함께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기간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드론쇼 관람은 무료이며, 행사가 열리는 한강공원 인근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가전도, 이제 **구독**하는 시대.

냉장고부터 올레드TV, 워시타워까지!  
이제 원하는 모든 가전을 구독으로 만나보세요  
깨끗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관리해주고,  
거기에 든든한 무상보증까지-

**가전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 LG전자 구독**



LG전자 베스트샵 또는 LGE.COM에서 원하는 가전을 구독해 보세요

LG전자 구독 **subscribe**

\* 제품별 계약조건에 따라 구독기간은 상이하며, 총 계약기간 동안 제품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음. 계약기간이 3년 이하 상품은 계약만료 후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4년 - 6년인 상품은 계약만료 후 제품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됨.